

코스피(6월 전주 대비)	코스닥
▲ 3270.36 (+68.04P)	▲ 1059.80 (+28.66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 1146.00 (-4.30원)	▼ 1.433% (-0.002%p)

<맥스트>

상장 8일만에 660% 급등, 브레이크 없는 '메타버스'

언택트 바람 타고 증시서 대박 맥스트·자이언트스텝 등 질주
자산운용사 펀드 출시 잇따라
사업 실체 따져보고 투자해야



LG전자가 최근 사내 교육과정을 마친 직원들과 메타버스 수료식을 열었다. 사진제공 LG전자

증권시장이 메타버스 열풍에 들쭉거리고 있다. 관련 종목은 주가가 급등하고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펀드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문화가 보편화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안정적인 수익 차이가 없는 만큼 기업가치를 확인하는 과정

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상장한 증강현실(AR) 개발 솔루션 업체 맥스트는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 2배

에 형성된 데 이어 상한가까지 오르는 일명 '파상'을 기록했다. 상장 후 8거래일 중 4거래일을 상한가로 장을 마감하기도 했다. 장중 최고가는 공모가(1만5000원) 대비 660%를 넘었다.

3월 상장한 시각 특수효과(VFX) 전문 기업 자이언트스텝도 약 5개월여 만에 공모가(1만1000원) 대비 800% 넘게 급등했다. 장중 최고가는 공모가 대비 1028% 수준이다.

메타버스는 해외 시장에서 먼저 '대박'을 쳤다. 2월 미국 증시에 상장한 '로블록스'는 무려 44조 원(383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가치를 인정받았다. 포켓몬고, 어몽어스 등에 게임엔진을 공급한 유니티도 시가

총액 34조 원(308억 달러)을 기록했다.

일부 자산운용사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KTB자산운용은 6일 글로벌 시장에 상장한 메타버스 및 우주산업 주식에 투자하는 'KTB 글로벌 미터 버스&우주산업1등주펀드'를 출시했다. KB자산운용과 삼성증권도 6월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펀드'와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를 각각 출시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3D 센싱과 카메라모듈 업체 등의 수혜를 전망했다.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XR기기 등에 뛰어들면서 관련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AR 관련 수혜주도 VR 관련 수혜주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변 환경의 센싱 기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3D 센싱 업체들의 수혜가 클 것"이라며 "국내 관련주로는 3D 센싱 관련 부품업체인 LG이노텍, 덕우전자, 나무가, 하이비전시스템 등의 중장기 수혜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일부 기업은 메타버스를 '필'(추가부양 재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있더라도 지나친 기대감이 몰릴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메타버스의 진출도 중요하지만, 실적 개선 여부 역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박기영 기자 pgy@



도쿄올림픽이여, 안녕 1년 연기, 해외 관광객 입국금지, 무관중 경기 등 우려곡절 끝에 진행된 도쿄올림픽이 8일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한국은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따며 종합 순위 16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2020 도쿄올림픽 폐회식 기념 폭죽이 터지는 모습.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영화·대리운전·택배료 줄줄이 올랐다

밥상물가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 서비스 물가도 급등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밥상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7.3% 상승해 2011년(7.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서비스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는 데다 기준금리 인상까지 앞두고 있어 하반기가 더 큰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5면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한국의 식품 및 비주류음료(식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상승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18.0%)와 호주(1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1년 만에 상승률 순위가 23계단이나 뛰어올랐다. OECD 전체 평균(1.6%)과 비교하면 4.5배에 달한다.

밥상물가가 크게 뛰어오른 이유는 지난해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2분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달걀 가격이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했고 과일과 고기류, 각종 채소류도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는 2분기에만 11.9% 급등해 30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반기 밥상물가에는 5월 8년 4개월 만

에 최고치를 찍은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 반영되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 국제곡물 가격이 오르면 빵, 식용유 등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사료 가격도 상승압력을 받아 고기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8월부터 우유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3년 만에 21원(2.3%) 인상됐기 때문에 우유와 우유가 들어가는 빵, 아이스크림 등 타 식품 가격에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준다.

밥상물기뿐만 아니라 영화관람료, 대리운전 이용료, 택배 이용료, 외식비 등 개인 서비스 물가도 7월 2.7% 상승해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서비스는 지난해 내내 1.0%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다 올해부터 외식, 외식 외 가격이 모두 올라 7월 달째 2%대 오름세를 보였다. 7월 외식 외 가격은 영화관람료, 공동주택관리비(6.2%), 택배 이용료(6.2%), 대리운전 이용료, 여행비 등이 줄줄이 올라 2.8% 상승했다. 하반기 농축수산물 등 상품물가가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진정되더라도 개인서비스 물가는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 크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꺾이지 않는 집값, 3040 '영끌 매수' 불렀다

서울 집값 상승률 1%p 오를 때 3040 매수자 비중 2.34%p 확대
추격매수했다간 큰 피해 볼 수도

서울 집값 상승률이 가팔라질수록 아파트 매수자의 30~40대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심에 30~40대가 무리하게 추격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7면
이투데이가 8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자료(2019년 1월~2021년 5월)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률과 매수자 연령대별 비중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집값 상승률이 오를수록 매수자 중 30~40대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격 매수세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변동 1개월 후 매수자의 연령대별 비중 변화를 분석(피어슨 상관계

수 방법 사용)한 결과, 30~40대는 1의 방향으로, 50대 이상은 -1의 방향으로 상관 계수가 더 커졌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1~0, 0~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상관관계에서 1에 가까우면 매수 비중이 높다는 것을, -1에 가까우면 매수를 꺼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계수는 30대 0.558, 40대 0.415를 나타냈고 50대는 -0.410, 60대 -0.457을 기록했다. 즉 집값 상승률이 가팔라질수록 30~40대는 매수에 나서고 있고, 50대 이상에선 매수를 꺼린다는 의미이다.

집값에 따른 30~40대 매수자 비중 변화의 정도를 단순 분석한 결과에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P) 오를 때, 1개월 후 매수자 중 30~40대 비중은 2.34%p 확대됐다.

30~40대의 주택 매수세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라는 정부의 판단에 나름의 근거가 있다는 걸 뜻한다.

현재의 집값 과열은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월 이후 서울 아

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 월평균 1.08%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 -0.09%로 하락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 다시 0.42%로 반등했다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1.19%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반면 월평균 아파트 매매량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서 큰 차이가 없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흔히 거품이라고 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과도하게 확산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말한다"며 "매매량에 큰 차이가 없는 데 집값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면, 매물이 부족한 공급자 우위 상황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30~40대가 '패닉바이(공포매수)'에 나섰다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시차성으로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주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에 가격 폭락으로 현재 추격 매수자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연경·선우·상혁... “그대들 있어 행복했습니다”

김연경 日·터키 꺾고 배구 4위
황선우 자유형 200m 亞 신기록
우하람 다이빙 역사상 첫 결승행
우상혁·신유빈 ‘차세대 스타’ 예고



코로나19의 위협, 세계 각국 선수들과의 경쟁, 자신과의 싸움마저도 이겨낸 2020도쿄올림픽 선수들. 김연경(윗줄 왼쪽부터), 안산, 김소영, 공희용, 김민정, 전용태(가운뎃 줄 왼쪽부터), 김지연, 김세희, 서채현, 신유빈, 신재환(아랫줄 왼쪽부터), 오진혁, 황선우, 우상혁, 우하람. 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올림픽을 종주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대회가 연기되면서 많은 선수가 눈물을 삼켰다. 무대 뒤에서 흘린 구슬땀의 결실로 메달을 목에 걸고 금의환향한 이가 있는 반면 빈손으로 돌아서는 일이 허다했다. 그러나 메달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선수들은 모두 ‘자신만의 드라마’를 썼다. 비록 메달은 못 땀지만 ‘감동’을 선사한 올림픽인들의 활약을 모아 봤다.

◇‘배구 여제’ 김연경=2012 런던 대회 4위, 2016 리우 대회 5위를 이끌었던 김연경(33·중국 상하이)은 이번 대회에서도 여자 배구 대표팀의 4강을 이끌었다.

김연경은 전 경기 풀타임 출전하며 팀의 ‘에이스’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매 경기 득·실점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선수들을 독려하고 작전을 지시한 그는 8강전에서 세계 랭킹 4위인 터키를 만나 5세트 접전 끝에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를 마치고 만난 김연경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브라질과의 4강전을 앞두고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목에 피가 나도록 소리 지르며 뛰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갈채를 받았다.

김연경은 8일 세르비아와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 여자 배구팀의 4위를 확정지은 뒤 “오늘 경기가 국가대표로 뛰는 마지막 경기”라고 밝히며 국가대표 공식 은퇴를 선언했다.

◇‘뉴 마린보이’ 황선우=황선우(18·서울체고)는 한국 수영의 장래가 밝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번 올림픽 남자 자유형 50m·100m·

200m와 계영 800m에 출전한 황선우는 ‘아시아 수영의 희망’이었다. 남자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분44초62를 기록하며 박태환이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세운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다.

남자 자유형 100m에서도 47초97로 한국 신기록, 다음날 열린 준결승에서는 47초56으로 한국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또한, 한국 수영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자유형 100m 결승이라는 기록을 작성했다.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우상혁(25·국군체육부대)은 한국 육상에서 25년 만에 올림픽 결선에 올랐다. 한국 신기록인 2m35를 넘으며 한국 트랙&필드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를 기록했지만, 2cm 간발의 차로 동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우상혁은 “결과를 빨리 인정하면 행복도 빨리 찾아온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후회 없이 즐기고 싶었다”고 말해 ‘올림픽 정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했다.

◇다이빙 우하람=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한국 다이빙 역사상 처

음 결승행 무대를 밟았던 우하람(23·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한국 다이빙 간판’이라는 기대감에 화답했다.

생애 두 번째 올림픽에서 우하람은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승에 오른 데 이어 최종 4위를 차지하며 한국 다이빙의 올림픽 기록을 다시 썼다.

다이빙 종목은 중국의 압도적인 강세 속에 영국·미국 등이 정상을 다투는 종목이다. 23세 우하람은 그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3년 뒤 파리올림픽에서 메달 기대감을 높였다.

◇‘17세 탁구 신동’ 신유빈=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탁구는 신유빈(17·대한항공공)이라는 차세대 스타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탁구 역사상 최연소 올림픽 참가 기록을 세운 신유빈은 5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 58세 베테랑(니시야렌·룩셈부르크)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세계 랭킹 15위(두호이켄·홍콩) 선수와 접전을 벌이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김재영 기자 maccam@

선수들과 함께 웃은 현대차·SK·포스코

양궁 현대차 지원 업고 금 4개
SK 펜싱... 포스코 체조 등
오랜기간 재계 숨은 노력 호평



‘2020 도쿄올림픽’이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관심을 끈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지원해 온 재계의 숨은 노력도 함께 재조명되며 호평받았다.

8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대회를 마쳤다.

특히 큰 성과를 거둔 양궁과 펜싱, 체조, 배구 등은 재계의 꾸준한 지원을 받았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금메달 4개를 확보하며 세계 최정상에 오른 양궁이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은 1985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한 이래 37년간 5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적 지원은 물론, 첨단 장비를 개발하거나 구매했던 양궁 선수단을 도왔다. 정의선 회장도 아버지 뜻을 이어 2005년부터 양궁협회를 이끌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대회 기간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도쿄로 향해 대표팀 선수들의 경기를 참관하며 격려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현대차그룹은 양궁협회를 통해 대표팀에 두둑한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펜싱 대표팀도 메달 5개(금1·은1·동3)를 확보하며 역대 올림픽 사상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SK텔레콤은 2003년부터 대한펜싱협회 회

장사를 맡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스포츠정책과학원과 협업해 대표팀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그룹 차원에서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유치해 저변을 넓혔다.

SK그룹은 핸드볼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2008년 대한핸드볼협회장에 취임한 최태원 회장은 전용 경기장 건립과 남녀 실업팀 창단, 국가대표팀 지원 등에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핸드볼 대표팀은 이번 대회까지 포함해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포스코그룹은 1985년부터 대한체육회 협회 회장을 맡아 37년간 약 210억 원을 지원해 왔다. 금메달을 목에 건 신재환 선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비인기 종목 지원을 꾸준히 해 준 포스코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포스코그룹은 최정우 회장의 제안으로 이번 대회 포상금을 2배 이상 높였다.

여자 배구 대표팀의 선전으로 한진그룹의 역할도 재조명됐다. 2017년부터 한국배구연맹 총재를 맡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선수단이 입촌하기 전에 사기 진작을 위한 선물을, 이달 초에는 사비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한국배구연맹은 격려금 1억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땅끝 섬마을에서도

함께 웃어요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기후대응기금으로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탄소세 도입

〈글 쓰는 순서〉

1. 탄소중립 2050
2. 'E' 없이 인류의 미래 없다
3. 기업특명 '넷 제로'
4. 뉴노멀 탄소경영 ①IT·전자
5. 뉴노멀 탄소경영 ②자동차
6. 뉴노멀 탄소경영 ③에너지
7. 뉴노멀 탄소경영 ④금융
8. 뉴노멀 탄소경영 ⑤유통
9. 미래 도시를 찾아서
10. **韓 탄소중립, 어디까지 왔나**
11. 첫발 댄 '탄소발자국 지우기'



하태웅 농촌진흥청장이 5월 25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식품 기술혁신'을 주제로 열린 P4G 서울정상회의의 식량·농업 세션 연계 국제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50 에너지 로드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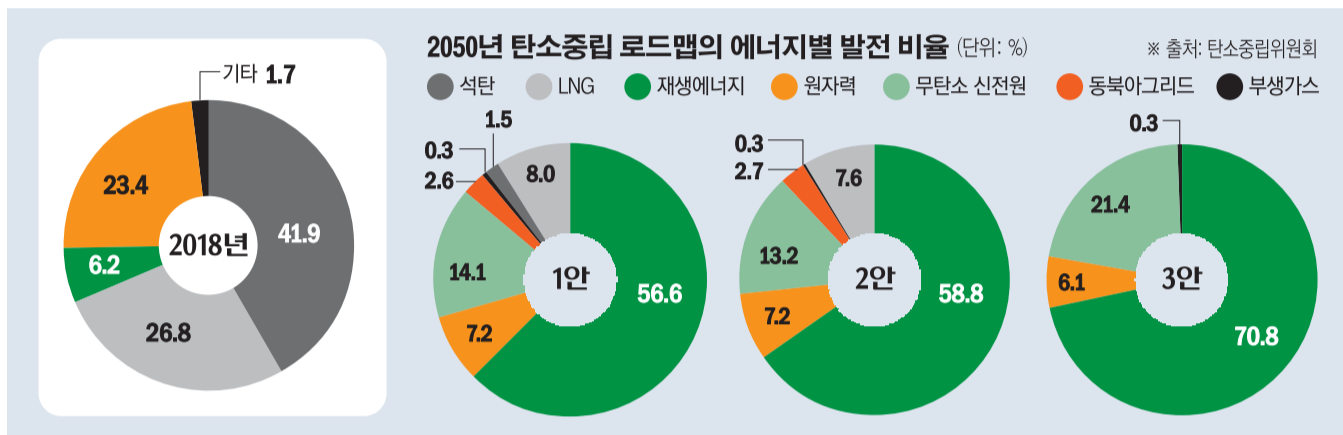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했고,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퉀 2050 탄소제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과제가 됐다. 기후위기는 물론 국제적 연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당장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물리는 '탄소국경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5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 사회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와 추진 전략 마련을 진행 중이다.

탄중위는 출범 2개월 만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시나리오에는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다만 베일을 벗은 정부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는 '완벽한 탄소중립'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고 업계는 과도한 목표 설정이라고



정부, 석탄·가스·원전 비중 줄여 물관리·자원순환에 투자 늘려야 사회적 부작용 고민없다 지적도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비롯해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넷제로'가 아닌 '공감제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능할까? = 탄중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2018년 순배출량 6억8630만 톤 대비 1안은 96.3%를 줄인 2540만 톤, 2안은 97.3% 줄인 1870만 톤, 3안은 100%를 줄

이는 안이다.

3가지 안의 가장 큰 차이는 발전 부문이다.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한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긴급 수요 차원에서 활용한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려 석탄과 LNG 발전을 전량 중단한다.

탈원전에 이어 석탄과 LNG 발전까지 줄여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에 다가서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전을 배제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기술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이 비현실적인 건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미 입증됐다"며 "지금도 폭염으

로 전력이 부족하니 원전 3기를 추가 가동해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내 원료원별 전력거래규모 집계 결과 석탄발전은 8조5599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력 조절이 쉬워 보조 전원으로 활용되는 LNG 발전 역시 같은 기간 지난해 7조 2819억 원에서 8조2817억 원으로 거래 규모는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정에서 원전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독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태양광과 풍력의 특

성,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는 전력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원전 없는 탄소 제로는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특성과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탄소 제로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비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용량이 2017년 24기 22.5기가와트(GW)에서 2021년 24기 23.25GW, 2024년 26기 27.2GW로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폭염으로 인한 전력 부족은 탈원전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 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어서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 활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사회구조 변화·기술 개발 서둘러야 =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도 논란거리다. 에너지전환은 물론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급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탈원전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최대 1400조 원의 설비 투자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전 본부장은 "송·변전 설비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며 "발전비용 증가는 그만큼 전기료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인데, 지금보다 최소 2~3배의 인상 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자원과 관련해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탄소 배출 저감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 지원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휘발유와 경유세 등의 수송용 에너지세와 유연탄, LNG 등 발전용 에너지세 체계를 바꾸면서 탄소세도 도입해 기금을 확충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물 관리, 자원순환 및 환경안전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탄소중립 가야할 길이지만 보완책 필요”

에너지 전문가 진단

10월 온실가스 감축안 유엔 제출 "만만한 게 없어, 일상 확 바뀔 것"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분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전 지구적 목표이며 한국도 세계 각국과 함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오는 10월 말 확정 예정인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 성급하고 무리한 목표치 설정을 경계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조언했다.

지난해 정부는 2018년 7억2760만 톤인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26.3%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의 한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선 2018년 대비 최소 31.4%에서 42.5%까지 감축률을 높이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교수들은 2050 탄소중립은 꼭 이뤄야 할 인류의 과

2050 탄소중립 부처별 주요 전략

- 환경부**
 -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 올해 무공해차 보급 30만 대 목표
 - 폐기물 전 과정 관리 로드맵
 -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 업종별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
 - 신산업 창출·경쟁력 강화 방안 구성
- 국토교통부**
 - 탄소중립 연료 가능성 검토
 - 대중교통·물류 인프라 대규모 투자 추진
 -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포진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발효 가스 저감 위한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 온실가스 저감 농업 개발, 우수 농가 인센티브
 - 농업 시설 RE100 가입,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 선박 바이오·LNG 연료 확대 / 전기·수소 선박 보급
 - 노후어선 교체 및 장비 고효율화

제라고 입을 모은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며 "탄소중립, 신재생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고 국가적 측면에

서 새로 도약할 기회, 신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탄소중립은 안 갈 순 없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위원회가 밝힌 초안에 대해선 "초안은 비전이고 청사진으로, 우리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으니 강화된 안이라고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박교수는 탄중위의 초안에 대해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30 NDC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50 탄소중립은 선언적이지만 2030 NDC는 국제법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교수는 "NDC만큼은 천천히 (높지 않은 감축률로) 가야 한다"며 "중국은 2060 탄소 중립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 기간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NDC 초안의 시나리오는 뭐 하나 만만한게 없고 올해 발표표 목표치가 정해지면 내년부터 우리 생활이 달라진다고 무리한 목표치에 대해 우려했다.

허은영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의 고민이 상당할 것이고 2030 NDC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 정책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전기·수소차 보급률 2050년까지 97%”

생활 속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가 받아들여 실행으로 옮겨야 완성된다.

탄소중립에 따른 변화를 실생활에서 가장 먼저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다.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은 최소 76%에서 최대 97%에 이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37만 대다. 2050년까지 국내 자동차 규모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규모를 최대 2360만 대까지 늘려야 한다.

우선 올해는 지난해 말 기준 14만여 대인 전기·수소차가 30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충전 인프라는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기 또한 급속 1만2000기, 완속 8만4000기가 확보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빼놓을 수 없다. 2050년이 되면 석탄발전소는 전국에 7기가 남거나 아니면 이들도 모두 없어질 예정이다. 이자리는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

을 위한 패널을 비롯해 거대한 풍력발전기를 전국 곳곳에서 쉽게 찾아보는 시대가 도래한다.

농·어업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 농업 분야에서는 벼 재배 600만 톤, 농경지 토양 580만 톤, 가축 장내 발효 440만 톤, 가축분뇨 420만 톤 등 매년 2040만 톤의 온실가스가 나온다. 국가 전체 연간 배출분의 2.9% 수준으로, 사육두수가 증가한 축산 분야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50년까지 농수축산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최대 1540만 톤으로 약 40%를 줄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 육류 소비 감소가 동반돼야 한다.

미국 소설가 조너선 사프란 포어는 저서 '우리가 날씨다'에서 "만약 전 세계의 소들을 하나의 국가로 친다면, 중국·미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이 세 번째로 많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산하면서 채식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체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스턴 컨설팅그룹은 세계 대체식품 시장은 2035년까지 29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교회 되고, 식당 안 돼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1729명 주말 최다 확진
오늘부터 일부 방역수칙 조정
종교 최대 99명·학술 49명 허용
이·미용업 영업시간 제한 철폐
자영업자 "일부만 풀어줘 더 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확진자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1700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지만, 교회 대면 예배 허용 등 일부 수칙을 개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72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말 기준 최다 확진자로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달 24일 1487명보다 242명이 많다. 평소 주말 확진자가 주중보다 수백 명이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다음 주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해 4차 유행이 전국화하고 있다"며 "감염 확산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발생 1670명 가운데 703명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대구·경북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비수도권에서 7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최근 1주일(1~7일)간 국내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수도권 936.6명, 비수도권은 558.9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145명이 나온 부산은 10일부터 22일까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현재 가장 중인 부산 시내 해수욕장도 이 기간 모두 폐장한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수

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한다.

대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모임 예외 적용을 하지 않고, 학술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반면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고, 최대 19명으로 제한했던 종교시설 활동은 수용인원이 101명 이상인 경우 10%까지 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콘서트장은 면적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칙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종교시설에 대한 예외 적용을 두고 논란이 크다. 그간 종교계는 식당이나 카페 등과 달리 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종교활동 인원을 19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체계 변경 발표 직후 낸 논평에서 "이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의 10%까지 모임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이를 두고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등은 불만을 쏟아냈다. 결혼을 준비 중인 김모 씨는 "규모가 큰 교회에서 99명까지 집합이 가능하다면 결혼식도 식당 규모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느냐"고 비꼬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영업자들도 교회를 비롯한 이·미용업 종에만 혜택을 줬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진모 씨는 "가게 문을 연 지 3개월 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됐는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 없이 계속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며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이 더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강원 고성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려 살처분 된 돼지들이 8일 트럭에 실려 매립지로 옮겨지고 있다.

8월 9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방역수칙

3: 3단계 4: 4단계

	현재 적용 중	변경(8월9일부터)
직계가족 모임	3 사적모임 예외 적용	3 미적용
돌잔치	돌잔치 전문점 별도수칙 적용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 수칙 일원화
스포츠 행사	3 50인 미만 허용	3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행사 문체부 협의 후 시행
학술행사	3 별도 인원 제한 없음	3 별도 공간 50인 미만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한시적)	3 면적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전시회·박람회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3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PCR 검사 의무화, 사전예약제 운영
이·미용업	4 22시 영업시간 제한	4 영업시간 제한 없음
종교시설	4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	4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최대 99명)

※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물가 비상, 내달 10조 풀린다

유류·농축수산물 값 오르는 데다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최근 유가·원자재 가격 강세와 함께 다음 달부터 본격 지급 예정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으로 인해 하반기 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8일 최근 한은이 공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7월 15일 개최)'에 따르면 한은은 하반기 중 유가가 현재 수준인 70달러대를 유지하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 전망수준(1.8%)을 웃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7월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하며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는데,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5월과 같은 상승 폭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고, 임금도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 물가관리 목표치인 2%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물가 상승세를 종전과 달리 기저

효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아졌다.

한 금통위원은 "글로벌 농축수산물 가격, 국제유가 등의 흐름을 통해 볼 때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완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며 "물가 경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종전 대비 올려 잡은 유가 수준은 최근의 유가 흐름이나 여타 기관들의 전망치에 비해 보수적인 전제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들 가운데 가격이 오르는 품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물가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지급 예정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다. 1인당 25만 원, 총 약 1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풀려 현금 유통성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등 수요 증가 등으로 식료품 물가가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WE DO

L

자연 원료 플라스틱으로
환경에 흔적을 0%로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0%로

모든 사업장의
폐기물 매립 발생을 0%로

LG화학은 탄소 배출 순증가율 0%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갑니다

LG 화학

아프리카돼지열병 3개월 만에 또 발생

강원 고성 돼지농장서 확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5월 이후 3개월 만에 농가에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확진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8일 밝혔다. 5월 4일 강원 영월 양돈농장에서 돼지열병이 확인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로써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총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약 2400마리로 중수본은 긴급 살처분을 시행 중이다. 발생 농가 반경 3km 내에는 돼지 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10km 내에는 농장 2곳에서 3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역학 관련 2개 도축장(철원·홍천)과 강원도 내 모든 돼지 사육농장 203곳에 대해서도 예찰 및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6시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차량에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양도세 개편안 '정부 패싱' 논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양도세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1주택자 공제 기산점 변경 부분에 대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양도세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당론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 △1주택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규모에 따른 차등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5억 원 이하 40%, 5억~10억 원 30%, 10억~15억 원 20%, 15억 원 초과 10% 등이다.

이 경우 10년 장기보유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조금 더 작은 단기보유자가 양도차익이 보다 큰 장기보유자보다 세금혜택을 더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장기보유를 우대하는 정책방향과 배치된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하지만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마련할 때 정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차익 규모별 차등 공제가 법안에 담겼다.

여기에서 이번엔 문제가 된 기산점 변경에도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공제를 적용한다는 건 이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의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같은 조건이라도 양도세가 수억 원 불어날 수 있어 과도한 압박이라는 것이다.

법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잡아 그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는다는 게 민주당의 의도이지만, 과중한 세 부담에 처분이 아닌 증여 등으로 대응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기산점 변경을 두고 당정이 또 다시 부딪칠 공산이 크다. 송영길 대표는 10일부터 주말까지 휴가여서 휴가 복귀 후 진행될 당정협의에서부터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與 “협의 거쳐” 政 “의견 안물어” 다주택 장기보유자 혜택 이전 기산점 변경도 정부 난색 표해 양도세 개편안 심의 또 난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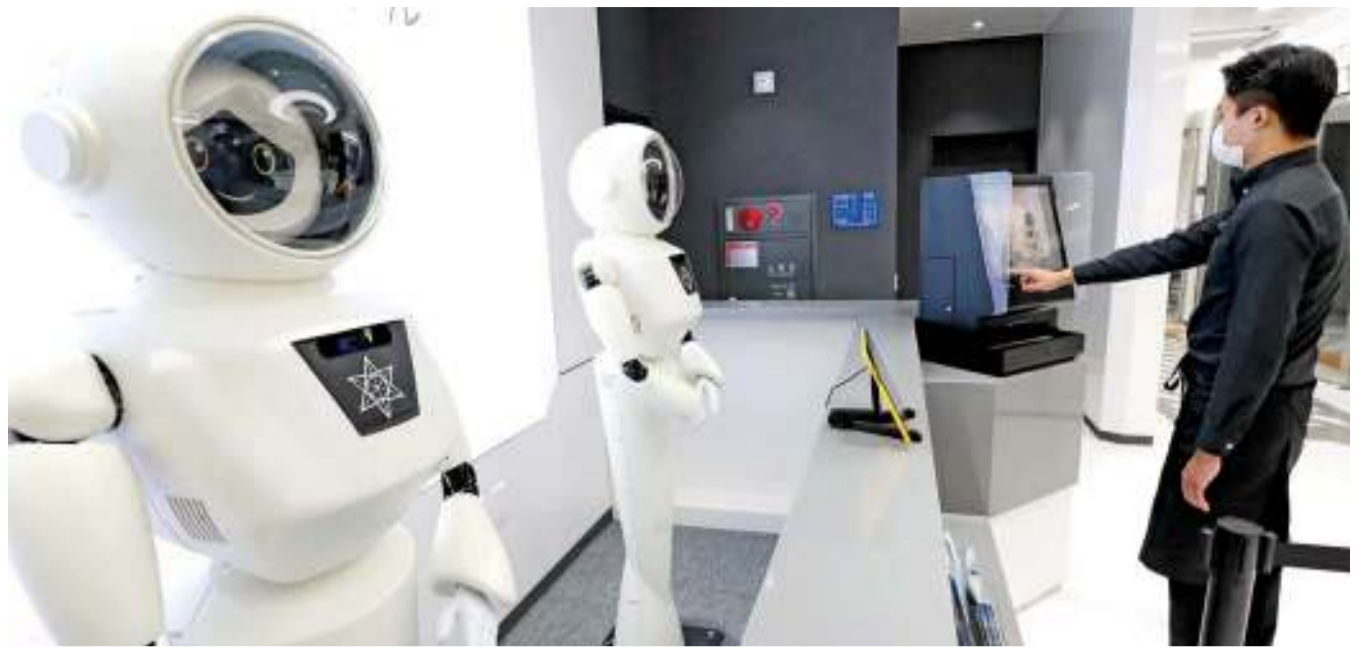
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변경 등이다.

정부가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짚은 부분은 기산점 변경 부분이다. 이에 정부를 패싱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발끈했다. 유동수 의원은 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고 정부와 상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도 “주기적으로 당정정 협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하는 건 당연히 이를 거친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신경전은 양도세 개편 초기부터 뚜렷했던 당정 의견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 법안은 현행 10년 동안 보유하면 40% 공제하는 것을 양도차익

김윤호 기자 uknow@



“체크인하겠습니다” 로봇 프론트 호텔 시연

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 프론트에 로봇 직원이 이용객 체크인 안내를 하는 모습을 호텔 관계자가 시연하고 있다. 로봇이 직원으로 일하는 세계 최초 호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 호텔은 현재 일본 내 18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며 1일 한국에 지점을 오픈했다. 연합뉴스

60세 정년後 ‘재고용 지원금’ 더 받는다

고용보험 가입자 30% 이내...최장 2년 720만원 지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대상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9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계속 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삭제된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

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다. 재고용 기한도 정년도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 재고용으로 완화된다.

지원 인원 범위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된다.

지급대상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지급 기간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지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코로나 4차 대유행에 경기 불확실성 확대

KDI “내수회복 제약 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대내외 수요가 증가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불확

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8일 발표한 ‘경제 동향 8월호’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대다수 품목에서 물량과 가격 모두 높

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이와 함께 소매 판매 증가세가 유지되고 서비스업도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세의 강화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도 소비심리가 일부 위축됐으며, 원자재가격 상승이 더해지면서 기업 심리도 개선 흐름이 둔화됐다”고 우려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호 발매



COVER STORY

황혼 로맨스와 부부의 세계

- PART1 新노년의 부부관계
- PART2 서로에게 다가가는 소통법
- PART3 황혼 부부 행동 가이드
- PART4 함께 찾는 은퇴 부부 설계
- PART5 퇴직 부부의 다시 쓴 이모작

신라보가 만난 사랑



시조 시인 송대준 시련 속에서 피워낸 꽃, 시조



생활 속 법률 상식
기업 승계를 위한
솔루션
구해직 부동산
경매로
노후 자산 만들기



전통 정원의 멋
담양 소재원



한의사 김소형 마음을 보살피는 건강 수업

충북 보은군
회인면 산골에
사는 심용섭
아니다,
시골 생활은
무료하지 않다



느린 여행
배 타지 않고
떠나는 청정 자연,
당일 섬 여행



감성 예술! 미술관 여기
이 미술관은
매우 다르다



습기로운 투자생활
수익률 향상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가이드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안심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의 서울살이가 즐거워지도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

2021. 8. 10. (화) 10:00 ~ 8. 19. (목) 18:00 마감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2만 2천명 월 20만원 지원** (최대10개월)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자세한 내용은 7월 27일 이후 서울주거포털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주거포털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李 전 대표 “말 아닌 실천 이어지길”
총리 등 성과 내세우며 무능론 돌파
기본소득·주택 비판 ‘되치기 시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 서구 영주종합체육관 1층에서 열린 장애인 김홍빈 대장 영결식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런 다짐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임부위원장인 신경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클린선언 제안을 전폭적으로 환영하지만 한 달여 동안 엄청난 네거티브 뒤라서 복기는 해야 한다”며 “한 달여 동안 네거티브를 사과하고 되풀이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대신 국무총리·당 대표 시절 성과를 제시하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4·7 재보궐 선거 참패 등을 들어 총리·당 대표 성과 부진을 지적하는 데 대한 맞대응이다.

또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비판을 제기했다. 무능론을 차단하고 이 지사 대표공약이 ‘공염불’이라 규정해 되치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정책본부장인 홍기원의원이 나서 먼저 기본주택에 대해 “수도권 좋은 땅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역세권 좋은 위치에 30평대 10억 원 가치 아파트 100만 채를 월세 67만 원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기본주택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한 채당 건설비 3억 원에 땅값은 그 두 배로 계산하던데 그럼 900조 원이다. 일부 짓고 그를 담보로 또 짓는 식으로 900조 원을 빌릴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결국 세금을 더 거둬야 확보되는데, 최소한 잡아야 1년에 전 국민 25만 원에 청년 125만 원 받으려면 1인당 39만 원, 4인 가구 156만 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입기 4년차 1인당 100만 원에 청년 200만 원 받으려면 1인당 114만 원, 4인 가구 456만 원을 내야 한다. 월 50만 원 받으려면 1인당 600만 원, 4인 2400만 원 증세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윤호 기자 uknow@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조기사퇴’ 비난하더니...與野, 이재명 사퇴 요구

이낙연 “경선 포기하라”·원희룡 “대선이 장난인가” 압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조기사퇴 요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에선 경쟁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선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 도지사가 제기했다.

이 지사는 경선과 도정 중 택하라면 도정을 택한다며 책임을 강조하면서 맞받았는데, 이에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그럴 거면) 경선을 포기하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도 “대선이 장난인가”라고 쏘아붙이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 사퇴론이 그리 힘을 얻진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 전 대표 외에 다른 경선 후보들은 사퇴 반대 입장을 펴고, 야권에선 원 전 지사 외에는 별다른 추구 목소리가 없어서다.

배경을 살펴 보자면 우선 지난 대선이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당시 대선후보이던 홍준표 의원은 경남지사직을 조기 사퇴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보궐선거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 사퇴해 경남도민

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도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당시 후보는 “국정농단 탄핵반대 정당 대선후보가 도정을 핑개쳤다. 1년간 경남지사는 없다. 이렇게 막해도 되는 건지 도민들께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도 “꿈수를 부린 것이다.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문 후보와 경쟁했던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모두 사퇴하지 않고 경선을 치렀다.

김윤호 기자 uknow@

후원금 공방·회의불참 논란...윤석열의 ‘불편한 휴가’

확진자 접촉으로 모든 일정 취소
반려견과의 휴식 사진 공개 ‘절전’



8일까지 휴가를 보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6일 반려견의 이름을 딴 인스타그램 계정 토리스타그램에 반려견·반려묘와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공개했다. 토리스타그램 사진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휴가 중임에도 일단 여권과의 날 세우기와 당내 잡음으로 편치 않은 휴식을 보내고 있다. 5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윤 전 총장이 다음날 반려견 인스타그램인 ‘토리스타그램’에 올린 글과 사진부터 여권의 공격 대상이 됐다.

윤 전 총장은 6일 충남 아산 현충사와 윤증 고택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 검사 후 자택에 머물렀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토리스타그램에 “아빠 회사 안 간다 왓싸?”라는 글과 함께 반려견들과 누워서 휴식하는 사진을 올린 게 문제가 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아빠 회사 안 간다 왓싸???’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가 할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김기흥 국민캠프 부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통해 “(김 의원께서) 인스타그램의 문법을 모르는 것 같아 친절하게 설

명 드린다”며 “휴가로 모처럼 집에 있는 아빠(윤 후보)가 좋아서 ‘아빠 회사 안 간다 왓싸?’라고 한 반려견의 마음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야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원금 뇌물 의혹’ 관련해서도 맞붙으며 핑공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가 성남FC 운영에 관해 사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며 “스스로 2016년 인터뷰에서 ‘성남FC를 통해 정치적 야망과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 관내 기업들로부터 광

고비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이 지사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은 김남국 의원은 “진짜 냄새나는 것은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금”이라며 “코바나컨텐츠가 어떤 기업으로부터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 공개하라”라며 맞섰다.

그러자 김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지사의 대응은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무턱대고 질문한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이라며 “검찰개혁이니 하는 거창한 말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성남 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답하라”고 촉구했다.

당 안팎으로 ‘지도부 보이콧’ 논란으로도 시끄럽다. 윤 후보가 4일 당 주최 후보 합동 봉사활동 일정은 물론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에도 불참하면서 불거졌다. 4일은 외부 일정, 다음날은 휴가라는 사유를 밝혔음에도 타 캠프 측까지 보이콧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이 와중에 ‘친윤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당이 마련한 대선 주자 행사를 ‘가두리 양식장’으로 깎아내리며 윤 후보를 돌고래로, 나머지 후보들을 멸치, 고등어 등에 비유해 논란을 더 키웠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미연합훈련’ 축소해 실시

3월보다 병력규모 줄여...北 ‘SLBM 시험발사’ 등 도발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16일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시행하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투입 병력은 지난 3월보다 줄여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어와 반격의 훈련 시나리오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북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의 도발과 이에 따른 남북 경색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후반기 지휘소연습에 참여할 한미 양측 인원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군과 해외 미군 증원군, 주한미군 참여 인원은 축소하지만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훈련 시나리오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0~13일 사전연습 개념의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16~26일 본연습을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시행해 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훈련이다.

이에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취소를 촉구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남조선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소동은 조선 반도(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남조선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 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운동에 엄청난 난관이 조성되곤 하겠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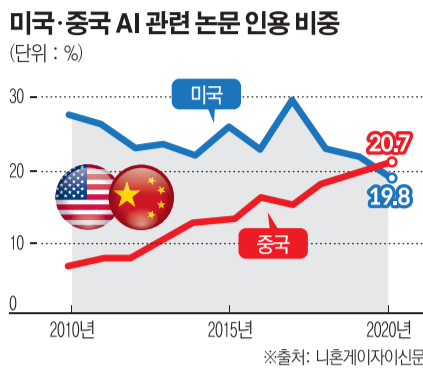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훈련 강행은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은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우려해 훈련 연기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훈련 규모 축소를 올해 목표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은 무산되고, 내년 전반기에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하유미 기자 jscs508@

中, AI 연구 美 추월... 인재·품질·활용도 '트리플 선두'

中, 과감한 투자 인재육성 결실 논문 수 24만개...美는 15만개 G2 'AI 패권경쟁' 가속화 전망



미국이 독주하던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선두에 올라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안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일본 나혼게이저이신문(닛케이)은 8일 중국이 AI 관련 논문의 수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을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Clarivate)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AI 관련 연구 논문 수가 24만 편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15만 편을 훨씬 웃도는 수다. 논문 수뿐만 아니라,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따르면 학술지에 실리는 AI 관련 논문 인용 실적에서 지난해 중국의 점유율은 20.7%로 미국의 19.8%를 넘어섰다. 논문 인용 실적에서 중국이 미국에 역전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연구 논문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마침내 미국에 앞서게 됐다는 의미다.

AI 관련 인재 출신을 따져봐도 중국의 존재감은 이미 상당하다. AI 최고 국제 학술회의인 '뉴립스(NeurIPS)'의 연구발표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중국 출신 학자 비율은 29%로 미국의 20%를 앞선다.

중국은 이미 AI의 이미지 인식과 생성 등의 연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6월 칭화대가 개발하고 선보인 중국 최초의 사이버 학생 '화즈빙'이다. 화즈빙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베이지징위안인공지능연구원(BAAI)' 주도로 개발한 AI 기술 '우다오 2.0'이 있다. 화즈빙은 현재 시(時)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창작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머지않아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업무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화즈빙의 인지(지식) 수준은 현재 6세 정도인데, 내년에는 성능이 두 배 개선돼 12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인재 육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위린 이토추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인구감소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노동력 부족 보완 수단으로 AI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7년 이른바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혁신의 중심이 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국계 AI 연구원은 미국에서 활약하는 경우 많았지만, 최근 중국은 자국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칭화대, 상하이교통대학과 같은 기존 AI 전통 강자뿐만 아니라 하얼빈공업대학, 저장대학, 서북공업대학 등도 최근 AI 관련 논문 발표 실적을 가진 연구인력을 각각 2000명 인력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대규모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중국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강점으로 통한다. 2030년 중국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는 80억대로 전 세계(250억대)의 32%를 차지할 전망이다.

미국의 위기감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인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는 3월 보고서에서 "중국에 AI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위기감을 표출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코로나 무능” 태 반정부 시위 태국 방콕에서 7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분노한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은 물대포와 고무탄, 최루탄 등을 동원해 시위를 강경 진압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1838명, 사망자는 212명으로 각각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시위에 가담한 한 시민이 경찰을 향해 새총을 쏘고 있다. 방콕/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 기저효과 줄어든 中, 亞 외환시장 암운

7월 수출 전년 대비 19.3% ↑ 기대치 밑돌아... 인니·태국 등 자본유출 위험 직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회복하던 중국 경제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기저 효과가 끝나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아시아 통화 가치가 추락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홍콩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7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고 수입은 28.1% 증가했다. 앞서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한 기대치인 수출 20% 증가와 수입 33.3% 증가를 각각 밑돌았다. 무역수지 흑자는 565억8000만 달러(약 65조 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7.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활동 재개에 수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진 탓에 향후 수개월 내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다. 중국 경제지표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핀포인트에셋의 장지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선행 지표는 수출이 앞으로 몇 개월간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수출 둔화와 코로나19 확산은 당분간 중국 불확실성의 요인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9%를 기록했다. 1분기 18.3%에서 눈에 띄게 둔화했다. 시장은 성장률이 연말에는 6%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회복의 척도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7월 50.4를 기록해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0이 경기 활성화를 판단하는 기준인 만큼 성장이 둔화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위안화 가치에 하방 압력을 가해 아시아 통화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남아시아는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 규모 4조7400억 위안(약 839조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유럽연합(EU)을 밀어내고 교역

상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대중국 순수출 비중이 큰 국가들의 통화 약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통화 가치 하락은 해당 국가들의 자본유출 위험을 높인다.

HSBC은행의 폴 맥켄 애널리스트는 “역사적으로 아시아 통화 가치는 위험 선호가 약하고 성장 모멘텀이 고점일 때 위안화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수록 동남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다른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SCMP는 “대만과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도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단단히 고정돼 있어 ‘환율 영향이 동남아 너머로까지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버크셔해서웨이, 경기회복에 '깜짝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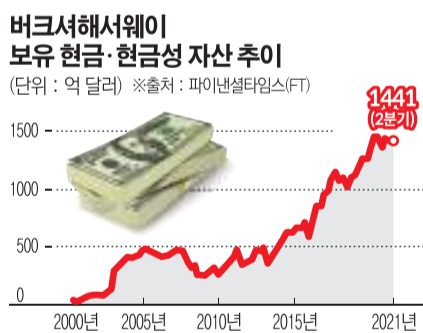
에너지·철도·유틸리티 사업 호조, 매출·순익 6.8%·영업익 21% ↑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미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해서웨이는 2분기 영업이익이 21% 증가한 66억9000만 달러(약 7조 66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6.8% 증가한 280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식 투자 수익을 반영한 2분기 순이익은 281억 달러로 6.8%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회계법이 개정되면서 최근 몇 년간 버크셔해서웨이 실적에서 주식시장 성과를 반영한 순이익이 경영 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영업이익을 크게 웃도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합기업인 버크셔해서웨이에는 경기민감 업종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버크셔 실적은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나타내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순이익이 영업이익의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하자 버크셔해서웨이의 에너지와 철도 등 매출이 함께 회복한 것이 전체 회사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 실제로 2분기 철도·유틸리티·에너지 부문 영업이익은 2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7%



급증했다. 주택 건설과 페인트 제조 자회사 역시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버크셔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은 1441억 달러에 달한다. 3월 말(1454억 달러)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형 인수·합병(M&A)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마땅한 매물이 없었던데다 최근 매출 가격이 오르면서 M&A 활동이 '일시 멈춤' 한 영향이었다. 막대한 현금에 주주환원으로 이어졌다. 버크셔해서웨이는 2분기 동안 60억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반기 전체로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126억 달러에 이른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지난해에만 사상 최대 규모인 247억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부진하던 버크셔해서웨이 주가는 최근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연초 대비 23% 오른 상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최악의 산불' 세계 탄소배출 사상 최대

加·美·EU 등 기후재난 속출... 7월 343메가톤 배출

7월 산불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폭염에 따른 산불 피해가 늘어난 까닭인데, 올해 산불 시즌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7일(현지시간) 영국가디언은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대기감시서비스를 이용해 지난달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산불로 343메가톤 규모의 탄소가 배출됐다고 보도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배출량으로, 이전 최대치인 2014년 7월보다 20%나 많다.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 확산하던 산불은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터키와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에서는 현재까지 12만800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년보다 8배 큰 규모로 산불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선 불길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관 7500명이 진화에 나섰지만, 상

황은 여의치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달려가 연기를 마시고 탈수로 쓰러지면서까지 일하고 있다”며 “한 소방관은 크리스마스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전날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에선 주민 2명이 산불에 사망했고 그리스 아테네에선 한 남성이 화재로 쓰러진 전봇대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시베리아는 산불과 함께 대규모 화염과 유독성 연기구름이 인근 북극으로까지 번져 생태계 파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부 유럽 거의 모든 지역이 극단적인 화재 위험 상태이며 가뭄까지 더해져 피해가 막심하다고 우려했다. EU 재난위험관리국의 제수스 산미겔 아안츠 과학자는 “화재 영향을 받는 지역이 더는 지중해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 핀란드에서도 울여름 산불이 급하게 증가했다”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7일(현지시간) 소방관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아테네/로이터연합뉴스

설명했다. 문제는 아직 산불 시즌이 절정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평소 산불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유럽보다 많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산불이 남아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가디언은 “한여름 화재는 인간이 일으킨 지구 온난화의 파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최신 사례”라며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상호저축은행도 금융사고 규모 따라 과징금 매긴다

금융위, 기본과율 폐지 검토
은행·보험처럼 사고액 클수록
중대성 고려한 부과 기준 적용

금융당국이 금융사고가 커질수록 과징금은 줄어드는 상호저축은행업권의 과징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위반의 중대성이 클수록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는 은행, 보험 등 다른 업권처럼 과징금 계산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권의 과징금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금융 관련법상 과징금 규정

법령	고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보험업법	금융기관 검사, 제재 규정 제2조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상동/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4조

※출처: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

법령 위반의 중대성이 클수록 과징금 부과액 역시 커지는 다른 업권과 달리 법령 위반의 중대성이 커도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 보험 등 금융

업권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할 때 법정부과 한도액에 '기본과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과징금 산정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법령 위반의 중대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과율에 오히려 낮게 적용돼 과징금 부과액이 불합리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7년 기본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계산 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당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저축은행업권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 대상으로 포함돼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법정부과 한도액에 기

본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거 은행, 보험 등 문제가 제기됐던 과징금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방식이 다른 업권과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발생해왔다.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유가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더라도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역시 지속적으로 "과징금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사유가 없는데도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부과율이 낮게 적용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은 고려되지 않는 기존의 기본과징금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과징금이 불합리하게 부과될 소지

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방식이 변경될 시 상호저축은행 역시 은행과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처럼 법령 위반금액이 커질수록 부과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기존 기본과율 방식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는 부과기준을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저축은행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령 개정 절차가 감사원 감사 결과 전에 시작돼 과징금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추후 개정 작업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서희희 기자 jhsseo@

금융지주 하반기 실적 '정치권 포퓰리즘'이 변수

원금 깎아주는 은행 빚 탕감법
내년 대선 앞두고 국회 계류중
금융위·금감원 수장 동시 교체
이자 유예 등 정책 불확실성 커

올 상반기 역대 최대실적을 낸 5대 금융지주가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20대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금융정책과 금융당국의 규제인 관치금융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금융정책 변동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은 9조37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7% 급증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 하반기에도 금융지주사들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반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약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증가한다.

하지만, 20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금융 정책이 얼마나 쏟아질지가 관건이다. 재난상황시 은행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은행빚 탕감법'이라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 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영



고승범(왼쪽 사진)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보 신임 금감원장이 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와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에서 금융권에 기대하는 서민 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도 압박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자영업자에 저금리 무담보 신용대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맞물려 포퓰리즘 금융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금융이 할 일이 아니고 재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권에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관치금융 논란도 관심거리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총량제를 운영했다.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하반기에는 2금융권도 대출제한도 예고했다. 배당성향에 대한 간섭도 관심거리다.

지난 1월 말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지

주회사와 은행의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관리 권고를 발표했는데 최근 이를 해제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한금융지주에 배당 추진 계획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할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 교체도 변수다. 지난 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보 금감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황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은행들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

21대 국회 후반 정부위원장 야당으로 넘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리스크로 꼽힌다. 새 정부위원장으로는 유의동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재옥 의원이 합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힌다. 두 의원 모두 국민의 힘 소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가상자산 거래소 "개발자 찾기 힘드네"

4대 거래소 전방위 구인 노력
프로젝트 따라 이동 잦은 데다
가상자산 인식 나빠 기피 영향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만능적인 개발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커스터디·NFT·거래소 네트워크 확충 등 서비스 확장을 위한 개발자가 다수 필요하지만, 신규 산업인 가상자산 거래소로 향하는 발길이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코인 거래시원 외에도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커스터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두나무의 기술 자회사 랩다256은 CJ올리브네트웍스와 손잡고 NFT 시장에 진출했다. 코빗 또한 블록체인·패어스퀘어랩과 함께 구성된 컨소시엄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을 통해 지난 5월 NXC·알파자산운용·제이씨현시스템으로부터 디지털 자산을 수탁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채용 홈페이지에는 '인프라 운영 담당자 채용', '백엔드 엔지니어 채용·업비트 체결엔진 개발', '파이썬 엔지니어 채용' 등의 공고가 올라와있다. 특히 인프라 운영 담당자 채용 시 BGP 구성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다. BGP는 외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교류가 가능한지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타산업과 연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이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업비트뿐 아니라 빗썸·코인원·코빗도 전방위적으로 개발자를 구하는 중이다. 빗썸은 블록체인 시스템 엔지니어, 프론트·백엔드 개발자, UI/UX 디자인을 막론하고 수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최근 체결한 서강대 블록체인연구센터와의 MOU 또한 개발자 구인을 위한 포석이다. MOU 체결 관계자에 따르면 빗썸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연계된 개발자를, 서강대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코인원도 가상자산 지갑 백엔드·안드로이드 개발자 등을 상시 채용 중이다. 코빗 또한 플랫폼·커스터디·신사업 개발자 구인 공고를 올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산업이다 보니 이쪽 분야만 봤던 전문가들이 있는 게 아니"라며 "개발자의 경우 프로젝트별로 움직이다 보니 입사·퇴사가 잦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 또한 "공급이 적다 보니 개발자에 대한 대우는 업계 최고 수준이지만, 네이바·토스 쪽으로 가겠다는 개발자들이 많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나빠 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부의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와 시장의 실제 프로젝트는 천양지차"라며 "기술 전문가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박소는 기자 gogumee@

하나은행 '비대면' 자산관리·상속설계 상담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확대

하나은행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자산관리 및 맞춤형 상속 설계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탁을 활용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인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에서 제공된다. 기존 찾아가는 대면 상담 서비스에 더해 하나은행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뱅킹 앱 '하나원큐'에 비대면 디지털 상담 기능이 추가된다.

특히 이번 디지털 채널 확대로 디지털 및 모바일 환경에 친숙한 MZ세대들에게 보탬이 될 예정이다. 젊은 시기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체계적 자산관리 계획



△맞춤형 자산 증대 솔루션 △상속 설계 △합리적 재산 증여 시기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금융 솔루션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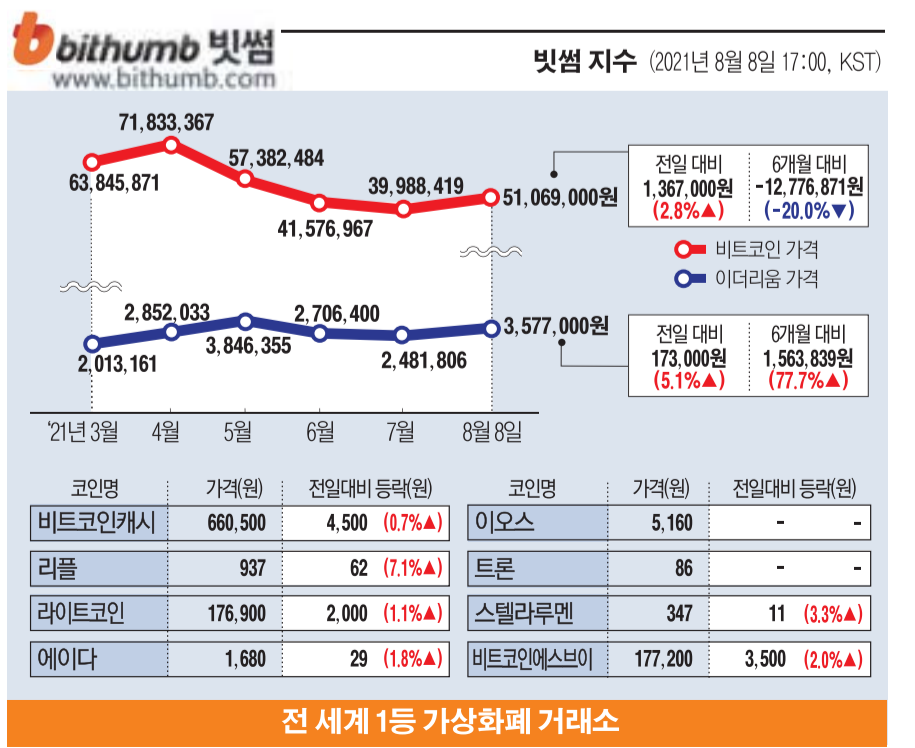
또한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별 상담이 가능하

도록 확대 개편했다.

법률, 세무, 부동산 전문가 및 신탁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을 기존 18명에서 총 25명으로 대폭 늘렸다.

김기석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축적된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전문가들이 비대면 채널로 손님 한 분 한 분께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와 상속 설계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및 금융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스스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등에 따라 개인의 자산관리와 상속은 물론 기업의 승계 플랜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이다. 박소는 기자 gogumee@



위기의 삼성, 총수 복귀 땀 'TSMC·인텔'에 반격 속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운명의 날'

법무부, 오늘 가석방심사위 개최 '적격 판정' 땀 13일째 출소 '20兆' 美 파운드리 증설, AI·5G 등 글로벌 M&A 탄력 전망
 형기 1년 남아 가석방 무산 땀 경쟁사 투자 적기 대처 '적신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고관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해왔으나, 최근 이 기준이 바

뀌며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부회장이 심의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13일째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주춤하는 사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에서 모두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삼성전자의 '비전 2030' 수성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우려도 팽배하다.

업계에선 이 부회장이 복귀하게 된다면 그간 속도를 내지 못했던 대형 투자에 대한 결단이 나올 것으로 내다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미국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증설 계획조차 반년 넘게 확정 짓지 못했다. 미국 증설에 들어가는 자금 20조 원은 삼성전자의 해외 단일투자 규모 중 최대치

삼성 투자계획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바이오로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약 20조 원(170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 공장 증설 국내: - 2030년까지 171조 원 투자, - 2022년 하반기 편액 34인 완공 예정 M&A: 올해 초 "분야 가리지 않고 M&A·미래 성장 발굴" 지난달 "AI, 전장, 5G 분야 중점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합작회사 등을 통한 공장 건설 검토 구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2023년까지 25.6만리터 규모 4공장 신설

로, 최고 의사 결정권자 부재 상황에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TSMC와 인텔 등 주요 경쟁사들이 앞다퉀 미국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으로 이 투자 건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하만 인수 후 5년째 멈춰 있는 대형 M&A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에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전장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NXP,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이 잠재 후보로 거론된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의

경우 당장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오너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계는 가석방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면서도,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대외적으로 공식 견해 표명을 꺼리며 조심스럽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일 가석방이 무산된다면, 삼성그룹은 약 1년 가까이 남은 내년 형기까지 경쟁국 투자에 적기 대처할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 몰린다.

또한, 가석방된다 해도 온전한 경영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리스

크다. 가석방은 특별사면과 달리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5년 취업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해외 출장 등 현장 경영도 제한된다. 경영 활동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를 놓친 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며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김중용 기자 deep@

"ESG 경영 체계 완성" SK이노, 지배구조 혁신 승부수

ACGA 회원사와 소통·논의 '韓기업, 거버넌스 분야 뒤쳐져 그린 비즈니스 전환·가치 제고'



김중훈(왼쪽)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이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합 및 회원사들에 SK이노베이션의 지배구조 혁신 내용과 추진방향을 소개해 시장과 소통에 나섰다. 이는 모범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해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회사와 이사회가 그간 구축해온 지배구조(거버넌스·Governance) 혁신 내용을 평가기관과 기관투자자에게 소개하며 시장과 소통에 나섰다.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8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김중훈 이사회 의장 주관으로 지난 4일 화상회의를 열어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합(ACGA) 및 회원사에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해온 발자취를 소개하고, 관련한 조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ACGA는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올바른 지배구조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

영리 단체다. APG(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 블랙록, 피델리티 등 대형 투자기관들을 비롯해 100곳이 넘는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도 다수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최근 회사의 ESG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그린

중심 성장 전략을 발표한 '스토리 데이' 개최 △온실가스 감축 구체적 이행계획 담은 '넷제로 특별보고서' 발간 △ESG 중심으로 기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ESG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 'ESG 리포트' 발행 등에 관여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거버넌스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서 평가 절하 요인"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체제로 전환했고 올해부터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의 평가보수승계(성과평가·보수 결정·선임) 관련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기본(탄소) 비즈니스' 중심의 사업구조를 '그린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회의에 참석한 투자자들로부터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질문과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시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ESG 경영을 더욱 구체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사모펀드 'KCGI' 쌍용차 인수 출사표

에디슨모터스-키스톤PE '맞손'

기업회생 작업을 추진 중인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사모펀드 KCGI가 뛰어든다. 에디슨모터스-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 컨소시엄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8일 쌍용차와 KCGI 등에 따르면 KCGI는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에디슨모터스-키스톤PE-KCGI'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수전에 참여한 다. KCGI는 강성부 대표가 2018년 설립했으며 기업 승계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다. 3사는 9일 오전 MOU(양해각서)를 맺는다.

앞서 마감일에 맞춰 인수요청서(LOI)를 제출한 에디슨모터스는 재무적 투자자(FI)인 '키스톤PE'로부터 약 4000억 원을 투자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700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한 에디슨모터스는 자회사 '썬미시스코'의 유상증자 및 CB(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로 약 2500억 원을 더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키스톤PE 등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추가로 4000억 원을 투자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이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일부를 KCGI가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용차 인수전에는 △SM(삼라마다스)그룹 △카디널 원 모터스 △에디슨모터스(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케이팝모터스(케이에스프로젝트 컨소시엄) △박석전엔컴퍼니 △하이젠솔루션(퓨처모터스 컨소시엄) △이엘비엔티 △월드에너지 △INDIEV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SM그룹과 일찌감치 인수의 지를 내비친 카디널 원 모터스, 그리고 이번에 FI를 확정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놓고 치열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3900억 원에 달하는 공익 채권과 향후 투자비용을 고려하면 쌍용차를 실제 인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1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김중훈 기자 junior@

로봇청소기 수요 흡입한 'LG 코드제로 R9'

구매자 70% '오브제 컬렉션' 선택

LG전자가 성능과 디자인을 대폭 강화한 'LG 코드제로 R9 오브제 컬렉션(사진)'을 앞세워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8일 LG전자에 따르면 6월 말 신제품 출시 후 한 달간 LG 코드제로 R9 로봇청소기 제품군 판매량은 전달 대비 2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코드제로 R9 오브제 컬렉션 비중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였다.

LG 코드제로 R9 오브제 컬렉션은 대폭 강화된 인공지능의 편리함과 집안 공간 어느 곳이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오브제 컬렉션 디자인 등을 모두 갖췄다.

이 제품은 기존 70만 장 수준의 사물 이미지를 학습한 제품 대비 4배 늘어난 약 300만 장을 학습해 실내 공간과 장애물을 더 정확하게 인지한다.



LG전자만의 스마트 페어링 기능도 돋보인다. 신제품이 진공 청소를 끝내고 복귀하면 물걸레 전용 로봇청소기인 코드제로 M9 씽큐가 알아서 물걸레 청소를 진행해 한 번에 진공과 물걸레 청소를 모두 끝낸다.

LG전자는 집안 전체 공간 실내장식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카빙 그린과 카빙 베이지 등 오브제 컬렉션 색상을 로봇청소기에도 적용했다. LG전자는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 미국 팬톤 색채연구소(Pantone Color Institute)와 협업해 오브제 컬렉션 색상을 개발하고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삼성 오디세이 네오 G9, 美·유럽서 '엄지척'

IT매체 "최고의 게이밍 모니터"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G9(Neo G9·사진)이 해외 주요 매체로부터 '최고의 게이밍 모니터'로 호평을 받았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국 IT 전문 매체 트러스티드 리뷰(Trusted Reviews)는 최근 "오디세이 Neo G9은 현존 최고의 게이밍 모니터"라며 '추천 제품(Recommended)' 리스트에 올렸다. 오디세이 네오 G9은 '퀵 미니 LED'를 적용하고 독자적인 화질 제어 기술인 '퀵 매트릭스'와 '퀵 HDR 2000' 등을 탑재해 최고의 화질을 구현한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다.

트러스티드 리뷰는 △2000니트(nit)까지 지원되는 탁월한 HDR(High Dynamic Range) 성능 △화면 전환이 부드러운 240Hz 고주사율 △정확한 색 표현력 △몰입감이 뛰어난 32:9 비율의 와이드 스



크린 등에 대해 극찬했다.

미국 테크 전문가 모임 AVS 포럼(AVS Forum)은 '퀵 미니 LED의 향상된 성능을 통해 게이밍 모니터의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라며 2021년 '최고의 제품(Top Choice)'으로 선정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테크아리스(Techaris)는 "화면 밝기를 4096단계(12비트)로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48개의 로컬 디밍 영역과 10억 개 이상의 색상을 지원하는 환상적인 모니터"라며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 2021'로 선정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전기차도 고급·SUV가 대세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고급차와 SUV가 주도권을 쥔 전망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산 전기차는 전용 플랫폼의 순수 전기차, 수입차는 고급 전기차 중심으로 성장했다.

작년까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기반을 둔 현대차 코나 EV·기아 니로 EV 등 '파생형 전기차'가 인기를 누렸지만 지난 4월 현대차가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출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바탕으로 한 실내구성부터 충전 및 구동 시스템까지 전기차의 새 표준이 수립됐다. 기아 역시 지난달 E-GMP를 바탕으로 첫 전기차 EV6를 출시했다. 올해 선보인 이들 전용 전기차의 가격은 보조금 혜택을 고려해 모두 600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향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고급 전기차와 대형 전기 SUV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제네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출시한 G80 전동화 모델은 3주 만에 누적 계약 대수 2000대를 돌파했다. 보조금을 제외한 G80 전동화 모델의 기본 가격은

기본 8300만원 제네시스 G80 출시 3주 만에 2000대 판매 수입 고급 전기차 시장 맹추격

8281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 수요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G80 전동화 모델은 전기모터 출력이 272kW에 달한다. 내연기관으로 환산하면 약 370마력이다.

급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0%→80% 충전까지 22분이면 충분하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427km에 달한다.

제네시스는 이 여세를 몰아 전기차 영역을 더욱 확대한다. 하반기에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한 첫 모델 GV60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네시스 SUV 가운데 막내지만 '전기차+고급차+SUV'라는 키워드를 모두 거머쥔 만큼, 제네시스는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차는 2024년 아이오닉 7을 출시할 계획인데 대형 SUV 형태의 순수 전기차다. 차 크기만 따져보면 현대차 팰리세이드를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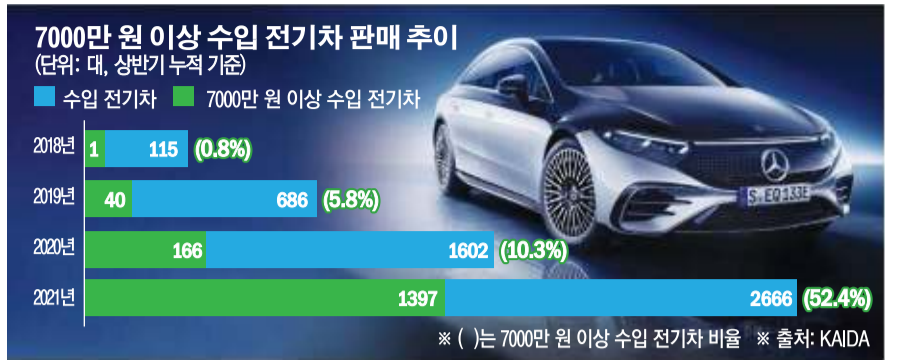
는 대형급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 전기차 판매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수입 전기차 판매는 115대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7000만 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 판매는 단 1대였다. 2019년 상반기에는 687대의 수입 전기차가 팔렸다. 이 가운데 7000만 원 이상 고가 모델은 5.8%(40대)에 머물렀다.

올 상반기 전체 수입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1602대)보다 66.4% 증가한 2666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7000만 원 이상 고가 전기차 판매는 1397대. 전체 수입 전기차 가운데 52.4%를 차지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 등 유럽 고급차 브랜드에서 잇따라 1억 원대 전기차를 국내에 선보이면서 고급 전기차에 관한 관심도 커진 것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산차의 경쟁력이 웬만한 수입차에 견줘도 모자람이 없는 만큼, 고급 전기차와 SUV 사이에서 국산차와 수입차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포스트 코로나” 美 항공사 투자 늘릴 때 “비상경영” 韓 국적사, 항공기 반납 급증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비행기 반납에 몰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경기 회복으로 항공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는 미국 항공사들과 대조적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우리나라 상장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티웨이항공)들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16대의 항공기를 반납했다.

리스 계약이 만료된 항공기를 일찌감치 되돌려 준 것이다.

비행기를 가장 많이 반납한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5대)이다.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은 4대를 반납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나란히 3대, 에어부산은 1대 반납했다.

항공사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비행기를 반납한 이유는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임대한 항공기 1대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리스료와 주유료(항공기 주차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1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델타 변이 확산 등 악재로 효과를 볼지 미지수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항공기를 도입한 상장 국적사는 3곳에 불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2대,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은 각각 1대씩 도입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항공사들은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매출 비중이 큰 국내선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올해 6월 보잉, 에어

항공사	2020년	2021년
대한항공	159	157 (도입: 1, 반납: 3)
아시아나항공	82	80 (도입: 2, 반납: 4)
제주항공	44	41 (도입: 0, 반납: 3)
진에어	28	23 (도입: 0, 반납: 5)
에어부산	24	24 (도입: 1, 반납: 1)
티웨이항공	27	27 (도입: 0, 반납: 0)

* 출처: 각 사

버스와 항공기 270대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는 2011년 아메리칸항공이 460대의 항공기를 주문한 이래 최대 물량이다. 이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신규 직원 2만 5000명을 채용한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올해 3월 항공기 100대를 주문한 데 이어, 6월에도 34대를 추가 구매했다. 델타항공은 지난달 항공기 36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LCC들은 자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올해 10월 2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채무 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쓰인다. 제주항공은 액면가 감액(5대 1) 방식의 감자와 동시에 2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유상증자에는 모회사인 애경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4월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8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그린에너지 푸른 하늘을 부탁해!

햇살, 바람, 수소로 만드는 신재생에너지는 미세먼지 없는 푸르고 맑은 하늘을 되찾아줍니다

에너지 전환이 만드는 기본 좋은 변화

맑은 하늘을 되찾다, 한국중부발전



국내 항공유 소비, 17년 만에 최저

코로나 악재로 상반기 1024만 배럴, 작년보다 12%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올 상반기 국내 항공유 소비가 전년 대비 약 12% 감소했다. 2004년 이후 최저치다.

8일 한국석유공사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항공유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한 1024만 배럴에 머물렀다.

지난해 상반기도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 항공유 소비량이 전년보다 40.5% 줄었다. 그런데 올해 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유 소비가 더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 올해 국내 항공유 소비량은 2004년(1008만 배럴) 이후 17년 만에 가장 적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1948만 배럴)의 절반 수준이다.

항공 업계는 백신 효과가 본격화하는 올 연말부터 항공유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다만 백신 효과

가 일부 국가에 국한된 만큼, 본격적인 회복세를 내던 이후로 점차 시기도 존재한다.

이처럼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유 소비가 감소했지만, 국내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4억5498만6000배럴)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소폭(2.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주요 원료인 휘발유는 전년 대비 5.4% 늘어난 4084만 배럴을 소비했다. 경유 소비량 역시 이 기간 2.7% 늘어난 8187만 배럴로 집계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석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연말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글로벌 석유시장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지난해보다 매일 540만 배럴 증가한 하루 9639만 배럴로 예상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최대실적 쓴 네이버·카카오, 신사업 확장 잔걸음

네이버, 커머스 등 매출 40%대 ↑ “콘텐츠 본격 전개”
카카오, 모빌리티·페이 73% 성장 “구독 서비스 강화”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2분기 나란히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신사업 부문에서 모두 호실적을 내며 성장한 점이 눈에 띈다. 양사는 올 하반기에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겠다 포부다. 키워드는 ‘신사업’과 ‘콘텐츠’, 그리고 ‘글로벌’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1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각각 기록했다.

네이버는 매출액 1조6635억 원, 카카오는 1조3521억9500만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네이버는 30.4%, 카카오는 41.9% 늘었다. 영업이익의 경우 네이버가 3356억 원, 카카오 1626억 원으로 차이가 났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성장률이 9%와 66.3%로 뒤집혔다.

이들이 나란히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신사업’과 콘텐츠가 꼽힌다. 다양한 산업에 뛰어들며 사업을 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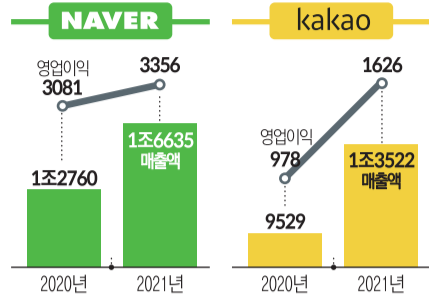
화한 성과가 나고 있단 분석이다.

네이버는 커머스와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4개 신사업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특히 쇼핑과 멤버십,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커머스 매출액이 36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6% 늘었고, 페이와 디지털금융 등을 포함한 핀테크 서비스가 같은 기간 41.2% 늘어난 232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클라우드 부문 역시 4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웹툰, 뮤직 등 콘텐츠 부문도 약진했다. 전 분기 잠시 주춤했던 콘텐츠 매출은 2분기 1448억 원으로 28.2% 증가했다. 웹툰이 일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데다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사업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2분기 모빌리티와 페이 등 신사업을 포함한 ‘플랫폼 기타’ 부문 매출이 24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가량 늘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고성장세가 이어지면

네이버·카카오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 2분기 기준)



연간 손익분기(BEP)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예측도 나왔다.

투입 자본이 많은 콘텐츠 부문과 스토리 부문에서도 성과가 났다. 스토리 매출이 57%, 게임이 20% 각각 성장하며 탄탄한 흐름세를 기록했다.

양사는 공통 포털답게 본업에서도 호실적을 올렸다.

네이버는 검색과 디스플레이 등 서치 플랫폼 부문에서 826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21.8% 늘어난 결과다. 카카오 역시 플랫폼 부문에서 특비즈 3905억 원, 포털비즈 1251억 원을 각각 기록하며 52%, 7%로 높은 성과를 올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하반기에도 신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네이버는 커머스와 콘텐츠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콘퍼런스를 통해 “하반기에는 신규 커머스 사업의 유의미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네이버는 쇼핑라이브, 브랜드스토어, 머천트솔루션 등 새로운 구매 방식을 확대하고 CJ대한통운·이마트 등과 손잡고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에도 나선다.

콘텐츠 관련 투자도 이어간다. 5월 북미 웹 소설 1위 업체인 ‘왓패드’와 합병한 네이버는 원천 IP를 바탕으로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한 대표는 “유명 글로벌 IP를 보유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1000억 원 펀드 조성을 통해 검증된 IP의 영상·출판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네이버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구독 생태계를 조성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실물 상품부터 청소, 세탁 등 무형 서비스, 이모티콘·특서랍 등 콘텐츠

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카카오는 최근 출시한 콘텐츠 큐레이션 플랫폼 ‘카카오유’를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 간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유 구독 플랫폼의 큰 틀을 완성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확장 전략을 예고했다. 카카오웹툰을 이달 1일 국내 출시한 카카오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웹툰 플랫폼을 만들어내겠다 포부다. 또한, 글로벌 만화 앱 매출 1위를 달성한 카카오재팬 ‘픽코마’와 3분기부터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타파스’, ‘래디시’를 통해 글로벌 사업도 본격 확장한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카카오옴과 멜론 컴퍼니와의 합병도 기대감을 키운다.

여민수 대표는 “멜론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IP 밸류체인에 결합하면서 스토리와 음악, 미디어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통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구조가 완성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제작 유통 역량을 내재화하고 페이지 멜론 플랫폼 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헤드헌팅 구독서비스, 中企 인력난 해소 도와”

인터뷰

박규태 더라이징스타헤딩 대표

“앞으로 계획은 글로벌 인재채용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베트남 진출을 위해 하노이에 지사도 설립했다.”

박규태<사진> 더라이징스타헤딩 대표는 8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비보이를 꿈꾸고 비보이 엔터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박 대표는 JYP엔터테인먼트에 입사, 신인 개발팀에 잠시 몸담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 그는 사람을 만나고 채용하는 일 속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한다. 선택지는 헤드헌팅 기업이었고, 구인·구직에 관한 미스매칭과 사회적 손실비용을 느끼고 직접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2016년 7월 설립된 더라이징스타헤딩은 구인·구직·이직 관련 채용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핵심은 헤드헌팅 구독 서비스다. 일반적인 헤드헌팅 수수료는 합격자 연봉의 15~30%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높은 수수료로 헤드헌팅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하지만 헤드헌팅 구독 서비스를 통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숨은 인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헤드헌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록된 채용 공고는 대형 HR 주요 포털에 자동



구인·구직·이직 등 채용 플랫폼 적은 비용으로 인재 찾기 가능 4대보험 연계 자동이력서 준비

으로 노출되고 헤드헌터와 사용자들을 통해 공고 공유가 이뤄져 보다 많은 인재를 찾을 수 있다.

헤드헌팅 구독 서비스 활성화 외에도 △4대 보험 연계 자동 이력서(2022년 3월 계획) △인공지능(AI)을 통한 이직 매칭(2022년 하반기 계획)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박 대표는 “4대 보험은 사회보장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의무 적용 사항이다.

근로자가 1인 이상 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며 “헤딩의 4대 보험 연계 자동이력서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 특실 내용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획득해 경력 증명 이력서로 자동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력서에는 직장명, 근무 기간이 자동으로 기재되고 수정할 수 없어 신뢰도를 제고시킨다. 이후 부서 및 직무, 주요 성과들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며 “이직자는 이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할 필요 없으며, 인사담당자는 검증된 이력서로 허위 경력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인사 업무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AI 이직 매칭 서비스도 있다. 4대 보험 연계 자동 이력서 서비스를 고도화시킨 것이다. 더라이징스타헤딩은 4대 보험 연계 자동 이력서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이 희망하는 인재와 커리어 개발을 희망하는 이직자를 자동으로 매칭, 추천해준다. 기업은 구직자의 이력 및 직무 키워드를 자동 추출한 후 AI 엔진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채용 서비스를 통해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예측하고 합격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박 대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꿈꾼다. 실제 많은 인재가 적절한 제안을 받지 못하고 구직활동에 애를 먹고 있으며, 기업들도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 큰 비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고종민 기자 kjm@



LG U+ ‘클라우드 보안’ 출시

LG유플러스가 증가·소상공인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에 PC보안 솔루션 7종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U+클라우드 보안팩을 출시했다. LGU+ 직원이 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힘신는 방통위

“중복규제 문제 공정위와 협의… 통상문제 가능성 낮아”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안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논란 확대를 진화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안이 오는 17일 결산국회에서 다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통위가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5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상 우려, 공정위와의 갈등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한미 간 통상 문제 우려에 대해서는 이달 초 미 앱공정성연대(CAF)의 국회 방문 및 간담회를 예로 들며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진단했다. CAF는

미국 15개 주에서 앱 생태계 규제 관련 입법 발의 동향을 전하면서 한미 자유무역 원칙 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마찰 가능성은 낮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앱결제 법안의 규율 대상은 국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독점적 행위 관련 기존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화한 것이라 한미 FTA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 또는 표준 부재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이용자 보호 장치가 이미 마련돼 개정안에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중앙화된 환불정책이 더 많은 시간 소요로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고, 앱 마켓이 책임을 이용사업자에게 떠넘기면 소비자 보호가 더 악화하는 측면을 지적했다.

공정위와의 중복규제 문제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 이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중기부·중진공, 청년창업자금 21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자금을 500억 원 확대 편성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창업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이다. 중진공은 기업의 담보력이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보다는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시

으로 별도의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금리는 2.0% 고정금리며 지원 한도는 제조기업과 지역주력사업 영위 기업은 최대 2억 원이다. 선정기업에는 자금 뿐만 아니라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등을 전국 18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해 청년창업기업 1691개사에 총 16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0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에는 2000여 개사에 총 2100억 원의 청년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추경예산 확보로 청년창업기업의 4대 애로사항인 자금·인력·제조·주거 중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중진공은 앞으로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신세계, 백화점 ‘도장 깨러’ 온다” 대전 상권 ‘전운’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개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타죽대감들이 방어 체제 구축에 나섰다. 신세계는 2009년 센텀시티점을 오픈하며 부산에 진출해 텃밭으로 삼던 롯데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혔다. 신세계는 대구 진출 5년 후 향토 업체인 동아백화점과 대구백화점이 문을 닫는 등 지방 도장 깨기의 강자로 꼽힌다. 신세계가 5년 만에 서울 최대 규모인 현대백화점의 ‘더현대서울’에 육박하는 규모로 충청권 석권에 나서면서 대전 백화점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대전신세계 27일 오픈= 신세계는 대전 점포 명칭을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로 정하고 이달 27일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 과학공원에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과학 콘텐츠 체험 및 문화생활, 여가 활동 등이 가능한 대전 충청 지역 랜드마크로 지하 5층, 지상 43층 규모로 영업 면적은 9만 2892㎡(약 2만 8000평)에 달해 올해 초 문을 연 서울권 최대 점포인 현대백화점의 더현대서울(8만9100㎡)보다 더 크다. 이 점포는 2016년 대구점 이후 5년 만에 신세계가 내놓는 점포로 충청도를 포함한 중부 지역에 직진출하는 최초 점포기도 하

다. 현재 천안에 아라리오점이 있지만 경영 제휴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오픈하면 기존 충청권 최대 규모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는 갤러리아 타임월드점(영업면적 6만 8380㎡, 약 2만 685평)은 2위로 밀려난다.

대전에서 가장 높은 193m의 높이의 아트 전망대와 신세계의 독자 브랜드인 ‘오노마’ 호텔도 함께 들어선다. KAIST(카이스트)와 함께 만든 과학관 신세계 넥스퍼리움, 충청권 최초의 스포츠몬스터, 살아있는 바다 생물들을 만나는 아쿠아리움도 내놔 가족 단위 고객의 발걸음을 이끈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는 고급화에 공 들였다. 구찌와 보테가베네타, 말버리,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27일 오픈 2만8000평 규모 지역 최대 매장 방어 나선 ‘갤러리아’ 명품 추가 롯데백 대전 ‘성심당스토어’ 열어

페라가모, 발렌시아가, 셀린느, 끌로에, 비비안웨스트우드, CP컴퍼니, 띠어리, 휴고보스, 델보, 몽클레르, 톰포드, 토즈, 생로랑 등의 명품 브랜드와 테그호이어, 피아제, 부쉐론, 쇼메 등 럭셔리 워치·주얼리 브랜드를 유치했다. 다만, 3대 명품인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은 협의 중이다.

◇롯데 대전·갤러리아타임월드 ‘긴장’= 대전 및 충청도 지역을 안방으로 삼고 있고 갤러리아로서는 신세계가 여간 깔끄러운 게 아니다. 기존 충청 지역 최대 명품을 보유한 갤러리아타임월드와 대전신세계 엑스포점까지의 직선거리는 2.5km에 불과하다. 롯데백화점 대전점과의 거리도 4km가 채 되지 않는다. 특히 대전신세계는 대전 북부에 위치해 소비력이 높은 세종·청주와도 인접했다.

루이비통과 롤렉스, 까르띠에를 중부권



갤러리아타임월드.

최초로 입점시킨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먼저 명품 브랜드를 추가해 방어에 나섰다. 5월 토즈에 이어 알렉산더 맥퀸, 발렌티노 등 명품 브랜드를 추가하고, MZ세대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COS(코스)와 A.P.C.를 중부권 최초로 입점시켰다. 아울러 프라다와 버버리 등 명품 브랜드에 대한 리뉴얼도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점포 매각 후 재입자를 추진하며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금 확보에도 나섰다. 아울러 리뉴얼을 통해 외관을 고급스럽게 꾸미고, 12층에는 ‘VIP 전용 갤러리아 라운지’를 오픈해 고객 이탈을 막는다. 작년 11월에는 웨이크백 대전 1호점을 론칭하고, 3월에는 프리미엄 가전 전문관도 오픈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지난해 6월에는 지역 유명 베이커리인 성심당의 초대형 매장 ‘성심당 시그니처 스토어’를 오픈하고, 10월에는 4층 옥상정원에 ‘소담밭’을 선보이며 힐링 공간을 늘렸다. 올해 2월에는 지하1층 식품관 매장에 대전 로컬푸드 직매장인 ‘한밭가득’을 오픈해 지역 친화 백화점으로 거듭났다.

특히 4층에 피트니스 ‘리조트 피트니스(Fitness)&랩(Lab)’을 열어 MZ세대도 겨냥했다. 국내 최초로 백화점 패션층에 입점한 프리미엄 피트니스 매장으로 애슬래저룩 브랜드인 ‘젝시믹스’와 협업했다. 이어 4월에도 9층에 프리미엄 휴게 공간인 ‘소담밭’을 오픈하고, 소세동 맛집으로 유명한 ‘동북야’, 인도커리 전문점인 ‘에베레스트’ 등도 최근 선보였다.

대전 문화동에 위치한 세이백화점도 VIP 등급을 세분화하고 전용공간인 ‘프라임라운지’도 전면 리뉴얼하는 등 회원 이탈 방지에 돌입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가 부산에 이어 대구까지 지방 권역을 하나둘씩 석권해 가면서 기존 지역 백화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매장 강화’ 조직 개편 성과... 노조 갈등은 숙제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취임 3개월

전기차 충전·점포 리뉴얼 속도 ESG 위원회 신설, 상생 확대



실적 부진을 거듭하던 홈플러스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제훈(사진) 사장이 취임 석달을 맞았다. ‘이제훈 체제’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짧은 재임 기간에도 ‘매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 개편을 이끌며 내부 단속에 발 빠르게 나선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고용을 둘러싼 노조와의 갈등은 이 사장의 숙제로 남았다.

5월 취임과 동시에 이 사장은 △오프라인 경쟁력 재확보 △온라인 사업 강화 △ESG 경영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직원이 행복한 홈플러스라는 4가지 사업 방향을 분명히 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프라인 경쟁력 확보’를 첫 번째로 언급하며 첫 출근 장소를 본사 집무실이 아닌 점포 현장으로 정했다. 이 사장은 취임 첫날 홈플러스 스페셜 서울 1호점인 ‘홈플러스 스페셜 목동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현장의 여러 분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눌 때 직

원들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깊은 자부심과 매장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뜨거운 기운을 모아 의미 있는 도전을 함께한다면, 어떠한 경쟁에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직원을 독려했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확대 작업에도 이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이달 기준 강서점, 대구성서점, 부산아시아드점 등 전국 92개 점포에 222기의 전기차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023년까지는 전국 모든 점포에 총 2000여 기의 전기차충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노후 점포에 대한 리뉴얼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먼저 원주점과 인천 청라점을 스페셜 점포로 전환, 오픈한 뒤 올 연말까지 전국 10개 점포를 홈플러스 스페셜 점포로 추가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ESG 경영 강화’ 측면에서도 이 대표의 후한 평가를 받는다. 홈플러스는 지난

달 상품 차별화를 키워드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간 한 명의 부문장이 전체의 상품을 총괄해왔던 ‘상품부문’ 조직을 상품1부문과 상품2부문으로 나눠 각각의 부문장이 맡는 방식으로 바꿨다. ‘카테고리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성과 극대화’가 조직개편의 목표다.

이달엔 ESG 위원회를 신설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회는 홈플러스의 ESG 경영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홈플러스 사업 전 분야에 걸친 ESG 중장기 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 현황을 심의하며 각 부문의 ESG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계속되는 노조와의 갈등은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내년 초 영업종료가 예정돼 있는 부산 가야점에서 노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는 “전국 5위 수준의 알짜 점포로 평가되는 가야점 매각은 자본 투기 행위”라며 매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이미 매수자와 계약이 끝난 건”이라며 “고용보장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상황에서 노조가 고용 불안을 내세우며 일부 직원들을 오히려 겁주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 사장은 취임 후 노조와 몇 차례 접촉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70년 전통 ‘아일랜드 슬리퍼’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에서 여름을 맞아 스타일과 편안함을 겸비한 ‘아일랜드 슬리퍼’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아일랜드 슬리퍼’는 1946년 하와이에서 탄생한 70년 전통의 브랜드로 하와이 현지 문화와 전통을 담아 수작업으로 생산한다. 오래 신을수록 인솔 부분이 발모양에 맞게 바뀌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SNS상에서 입소문이나 MZ세대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가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다. 갤러리아 명품관 프레드시갈 매장에서 판매한다. 사진제공 갤러리아백화점

“반려동물 위한 상품 다 모았다” CJ온스타일 ‘올팻데이’ 개최

TV·T커머스·모바일서 진행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올해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펫족’이 늘며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성장에 발맞춰 CJ온스타일은 10일부터 12일까지 ‘올팻데이’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TV, T커머스, 모바일 전 채널서 반려동물 상품을 확대 운영해 고객 구매를 유기적으로 유도하고 채널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CJ온스타일은 ‘올팻데이’를 한 달에 한번 고정으로 진행한다.

‘올팻(All PET)’은 CJ온스타일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반려동물 전문몰로 TV홈쇼핑 기획 프로그램으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팻에서는 프리미엄 상품들을 대거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CJ온스타일 TV라이브 반려동물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7월 주문 금액

이 전월 대비 약 123% 신장했다.

10일 오후 1시 35분 CJ온스타일 TV라이브에서는 바다 미끄러짐을 방지해 슬개골 탈구를 막아주는 반려동물 전용 ‘디팡 매트 폴딩형’을 방송한다.

CJ온스타일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는 ‘디팡’은 브랜드 누적 주문 금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

100% 국내 생산 제품이며 공간에 맞춰 원하는 칸수만큼 주문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이어서 ‘데이스포 테라픽 사료’도 판매한다. 방송 중 더블 구성 구매 시 1kg 사료 무료 체험을 증정한다.

CJ온스타일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마켓 ‘픽더셀’에선 반려동물 헬스케어 상품을 준비했다. 10일부터 3일간 열리는 쇼호스트 변진 마켓에서는 펫 헬스케어 브랜드 ‘핏핏 구강관리 세트’를 최대 62% 할인된 가격에 소개한다.

‘올팻데이’ 기간 내 반려동물 상품을 구매하는 전 고객에게 10% 적립금 혜택(앱 적립 신청 필수)을 증정할 예정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CU,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미래에셋페이’ 도입

10월부터... NFC 편의성 높여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미래에셋증권과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에셋페이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은 6일 BGF리테일 송지택 혁신부문장과 미래에셋증권 안인성 디지털부문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10월부터 전국 1

만 5000여 개 CU 점포에서 미래에셋증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미래에셋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페이는 국내 최초 아이폰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다. 지금까지 국내 오프라인 간편결제는 대부분 MST(마그네틱보안전송) 방식이었기에 NFC(근거리무선통신)를 지원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결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CU에 도입되는 미래에셋페이의 경우, 고가의 NFC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 없이 NFC 태그 스티커를 이용해 결제하



는 방식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미래에셋페이 앱만 다운받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앱 실행 후 NFC 태그 스티커에 핸드폰을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도시와 농촌을 위해
유통을 새롭게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로 놀랍게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바르게

함께 달려온 60년 함께 열어갈 100년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겠습니다



역대급 활황 증권가, 크라우드펀딩은 절반 넘게 ‘뚝’

크라우드펀딩 전년 대비 52.6% 감소한 79억4172만 원
전문가 “발행한도 관리 기준·계속공시 의무 등 규제 원인”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시장의 시가 총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60% 넘게 성장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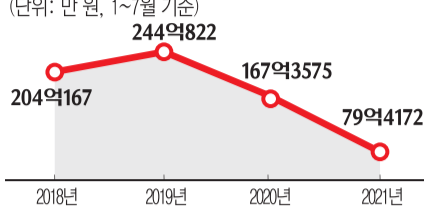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이브로와 크라우드넷 공시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6월 말 기준 총 시가총액은 2793조9600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61.79%(1067조930억 원) 성

장했다.

그러나 올해 1월~7월까지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은 79억4172만 원(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67억3575만 원 대비 52.63%(87억9403억 원, 56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67%(23억5660만 원) △제조업 21.18%(16억8248만 원) △도매 및 소매업 16.27%(12억9223만 원) △정보통신업 13.30%(10억567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 실적 공식 (단위: 만 원, 1~7월 기준)



이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2018년 1월~7월 204억 원(122건) △2019년 1월~7월 244억 원(115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근 증권시장이 사상 최대치 규모로 성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

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창구 마련을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제도화했지만 불황인 상황이다.

학계에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불황에 대해 발행한도 관리 기준과 계속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조사국제부 박사는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규모 확대를 위해 발행한도 관리기준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금액만 합산하는 방식, 기업의 재무제표 등 공시서류 게재 장소를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겸업 중개업자로서 4개의 증권사가 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크라

우드펀딩 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증권사의 진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역시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상장사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IPO·매각·투자유치 ‘요동치는 이커머스’

SSG닷컴·마켓컬리·오아시스 등 잇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새벽배송 경쟁 이커머스 판 키워

쿠팡이라는 ‘메기’가 시장을 뒤흔들면서 이커머스 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과거 이커머스 모델은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되는 투자만 요구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커머스 기업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자 ‘상장’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온라인 통합몰 측(SSG)닷컴이 상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SSG닷컴은 이미 주요 증권사들과 접촉해 상장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2023년 상장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 내년 상장 계획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도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증권사와 시장 수요조사(태핑) 작업을 진행하며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상장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국내 증시 상장으로 최종 결정했다. 컬리는 최근 시리즈 F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는데, 당시 기업가치를 2조5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컬리 측은 이달 내 지정감사인 선정을 마무리한 후 국내외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복수의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벽배송 2위 업체 오아시스마켓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오아시스마켓은 국내 새벽배송 업체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다. 오아시스 기업가치는 7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임수연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가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며 “새벽배송이 마켓컬리만의 경쟁력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배송을 제공하면서 시장 확대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11번가는 오는 2023년 기업공개를 목표로 세웠다. 11번가 모회사인 SK텔레콤은 지난해 진행한 실적 발표에서 “IPO 대상으로 외부 펀딩을 받은 11번가, ADT캡스, SK브로드밴드, 윈스토어, 웨이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전자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한국 진출의

파트너로 11번가를 선택하며 구체적인 제휴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티몬은 올해 기업공개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과 상장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선 유보하기로 했다.

현 상태로는 지분 98% 보유한 콜버그 크래비스로버츠(KKR), 앵커에쿼티파트너스 등 사모펀드(PEF) 대주주가 원하는 기업가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원하는 기업가치는 1조7000억~2조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신사업 활로를 모색하며 기존에 기업공개를 지휘하던 재무 전문가 전이전 공동대표도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에 투자은행(IB)업계는 대주주가 IPO 대신 매각으로 방향을 돌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세대 온라인 쇼핑물 인터파크는 새주인을 찾고 있다. 최대주인 이기형 대표 등은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28.41%를 매각하기 위해 인수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인터파크 매각가를 16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본입찰 일정은 이달 말에서 늦어도 내달 초로 예상된다. 이인아 기자 ih@

‘8만’ 회복하니 삼성전자 파는 재미들

5거래일간 1.7조 팔고 ‘곰버스’ 2251억 순매수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대를 회복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팔고 하락장에 베팅하는 ‘곰버스’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5거래일간 개인은 삼성전자를 1조7642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종목별로 보면 이 기간 개인 누적 순매도 금액 1위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지난 7월 한 달간 삼성전자를 2조4001억 원 순매수한 것과는 반대 흐름이다. 직전 주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7985억 원어치 순매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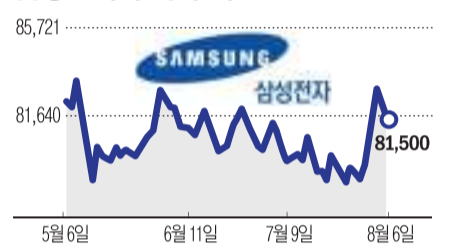
지난 주 삼성전자 주가는 약 2주 만에 8만 원대를 회복했다. 또 3거래일 연속 올라 지난 4일에는 5월10일(8만3200원) 이후 최고치인 8만290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연초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에 9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10만 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지만 이후 박스권에 갇히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거론되면서 7만 원대로 내려갔다.

하지만 최근 다시 업황 개선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문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주가가 8만 원대를 회복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모처럼 상승세를 타자 그동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던 개인 투자

삼성전자 주가 추이 (단위: 원)



자들은 발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를 매도한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인 종목은 하락에 베팅하는 일명 ‘곰버스’였다.

이달 들어 지난 6일까지 개인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KODEX 200선물 인버스2X’를 2251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이 ETF는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 1위에 올랐다. 순매수 규모에서 포스코(1517억 원), 카카오(1096억 원), SK이노베이션(881억 원), 현대차(705억 원) 등 대형주를 앞질렀다.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이 상품은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역으로 2배 추종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ETF다. 인버스 ETF는 풋옵션 매수, 주가지수선물 매도 등을 통해 지수 하락에 반비례해 수익을 낸다. 이 때문에 ‘2X’가 붙으면 기초 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한다.

그래서 인버스상품, 특히 ‘곰버스’에 돈이 몰리면 그만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였던 지난 1월 첫째 주에도 재미들은 ‘곰버스’를 2128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이 기간 개인 누적 순매수액 5위다. 구성현 기자 carlove@

美 기업 실적개선 둔화... 中 소비자물가 발표 ‘주목’

주간 증시 전망

이번 주(9~13일) 코스피 지수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기대감과 긍정적인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다만 매크로 모멘텀 피크아웃 논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리스크로 작용해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3200~3320선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잇달라 하회하면서 매크로 모멘텀의 피크아웃 논란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 분석이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미국 2분기 GDP 증가율은 시장 전망치(8.5% 상승)를 하회해 6.5%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2일 발표된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도 전망치 60.9pt를 하회해 59.5pt를 기록했다. 주요 지표 개선세

약화로 향후 경기와 기업이익의 개선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 주 주목할 이벤트로는 중국 7월 수출입(8일), 중국 7월 소비자물가(9일), 미국 7월 소비자물가(11일), 유로존 6월 산업생산(12일), 미국 7월 생산자물가(12일), 미국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13일, 잠정치) 등이 있다.

다만 지난 4일 발표된 ISM 비제조업 지수는 64.1pt를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넘어섰다. 매크로 모멘텀 약화가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기보다는 경기회복의 분야가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주목할 점은 경제 회복이 정점에 달했다는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상존한다는 점이다.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는 첫 발생 이후 1년 7개월만에 누적 기준 2억 명

을 넘어섰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국가에서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기도 하다.

긍정적인 점은 발생 당시와 비교해 공포감이 줄었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간 이동량은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 전국 이동량이 전주 대비 3.6% 증가했다. 코로나 확산을 경기와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리스크로 인식하기보다는 업종 관점에서 대응할 이슈라고 해석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기업 실적발표는 CJ제일제당(9일), 롯데제과(9일), 한온시스템(10일), 강원랜드(1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 키움증권(10일), 엔씨소프트(11일), 넷마블(11일), SK텔레콤(11일), 삼성화재(12일), 삼성생명(13일), 휠라홀딩스(13일), 하이트진로(13일) 등이다. 박기영 기자 pgy@

주식 열풍에 거래계좌 5000만 개 첫 돌파

지난 해부터 이어져 온 주식 투자 열풍이 좀처럼 식지 않으면서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5002만6237개로 처음으로 50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9일 4000만 개를 돌파한 이후 5개월 만에 1000만 개가 증가한 것이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2007년 7월 1000만 개를 돌파한 데 이어 2012년 5월 2000만 개를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하락하던 지난해 3월에 3000만 개를 기록하는 등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계좌 수의 폭증은 지난 해부터 SK

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카카오뱅크 등 대어급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려는 열풍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300선을 넘고 코스닥지수도 ‘닷컴 버블’ 이후 20년 7개월 만에 1000선을 뚫는 등 주가가 상승한 것 역시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SA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과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디플트옵션) 도입이 논의되는 등 정책도 이를 뒷받침하는 분위기다.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 ‘대어’로 꼽히는 기업들도 IPO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주민들 “후보지 지정 철회하라” 삐걱대는 공공개발

“의견 수렴 절차 생략한 밀실 정책” ‘정부 주도개발’ 반대 목소리 커져 부산 전포3구역 반대율 50% 훌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주민 절반 이상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요지부동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 주민 일부는 이달 5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후보지 내 토지주 310명 중 125명이 철회 요청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가산디지털단지역세권은 올해 3월 도심 복합사업이 도입된 이후 첫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아파트 1253가구를 지으려 계획 중이었다.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곳은 가산역세권뿐 아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과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당감4구역에서도 철회 동의를 국토부에 냈다. 각각 10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들 지역에선 토지주 과반이 사업 철회에 동의했다.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공반연)’라는 조직까지 꾸렸다. 지금까지 발표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6곳 중 15곳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6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였다.

이들이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명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철회 요청 현황

구역명	주택 공급량
서울 신길4	1199가구
서울 가산역세권	1253가구
부산 전포3	1241가구
부산 당감4	2525가구
대구 달서구 신철사	4127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동의 현황 ※ 8월 4일 기준

후보지 (주택 공급 물량)	주요 사업지
66.7% 이상 (지구지정 요건)	11곳 (1만7000호)
50% 이상	8곳 (8800호)
30% 이상	7곳 (9400호)
10% 이상	5곳 (4900호)
10% 미만	25곳 (3만5600호)

은 크게 △민간 재개발 추진 △재산권 제약 △불투명한 의사 결정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놓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 방식을 강요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 6월 이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에선 매대된 토지에 대해선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막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오세훈 서울 시장 등이 민간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공 주도 개발보다는 민간 재개발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공반연 관계자는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웃끼리 갈갈이 분열됐다”고 말했다. 도심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이어지자 일부 지자체에선 아예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추천을 꺼리고 있다. 국토부가 7월부터 민간에서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추천받기로 한 것도 지자체가 후보지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일부는 사업이 철회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6개월 이후 토지주 반대율이 50%를 넘으면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

국토부는 “후보지 철회는 구역 주민 전체 및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하반기 중 후보지 철회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인재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장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없지만 일정을 특정에 놓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외려 철회 요청서를 철저히 검증할 뜻도 밝혔다. 전 과장은 “토지주가 아닌 주민에게서 동의를 받거나 한 가구에서 여러 명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법이 시행된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새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 토지주 동의를 요건(예정지구 10%·지구 66.7%)을 충족한 후보지를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확보 작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약발 안 먹히는 정부의 ‘고점 경고’ 서울 외곽도 ‘10억 아파트’ 잇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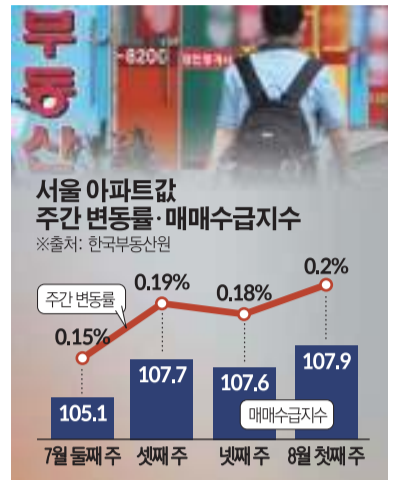
정부의 잇단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거래가 됐다 하면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집값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2% 올라 2019년 12월 셋째 주(0.2%) 이후 처음으로 0.2%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 가격이 오르자 재건축 단지나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값도 따라 오르면서 가격 ‘키 맏’ 추기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12월 10억 원에 팔리며 처음으로 거래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올라섰다.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 전용 49㎡형은 지난달 17일 7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다.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파트5차 전용 84㎡형은 작년말 하더라도 매매 시세가 9억 원을 넘지 않았으나 올해 2월 9억 원에 신고가 거래된 이후 지난달 10일 11억8000만 원에 팔렸다. 역대 최고가 거래다.

정부는 7월 마지막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가는 등 과열 양상이 지속하자 지난달 28일 흉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집값이 고점 수준이라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발표 직후 조사에서 오히려 집값 상승률이 0.2%대로 올라선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정부의 고점 경고 직전인 7월 마지막 주 107.6에서 지난주 107.9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는 3월 첫째 주(108.5)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이후 다소 진정되면서 4월 첫째 주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한 주 만에 반등한 뒤 이번 주까지 17주 연속 기준선을 웃돌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에 공급 물량은 부족하고 가격은 치솟은 탓에 외곽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 전셋값까지 뛰면 서아파트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금주의 분양캘린더

8월 둘째 주엔 전국에서 2800가구 넘는 아파트·오피스텔이 청약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6개 단지 287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 비버리하임 3차’, 경북 구미시 고아읍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이지더원 3차’ 등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18곳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스카이’, 인천 계양구 작전동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경기 평택시 세교동 ‘평택지제역 자이’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17개 단지는 이번 주 정당계약을 받는다. 대구 중구 태평로3가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경기 고양시 풍동 ‘더샵 일

산 엘로이’ 오피스텔 1~3단지,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오창 반도유보라 퍼스티지’ 등이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8개 단지는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 ‘계양 서해그랑블 더 테라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라센트 스위첸’ 오피스텔, 충북 청주시 북대동 ‘더샵 청주 센트럴’ 등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청약객을 맞는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8/9 (월)	접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비버리하임3차 ▲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천마에버리하임오션 1순위
	발표	서울	중랑구	망우동	서울양원아울림포레스트C3(민간임대)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센텀하이브 ▲
	계약	대구	남구	이천동	교대역푸르지오트레일즈 (~8/13)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상하양A3(행복주택) (~8/11)
					경상하양A4(국민임대) (~8/11)			
		경상하양A4(영구임대) (~8/11)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오창반도유보라퍼스티지 (~8/11)			
		충남	당진시	수정동	당진센트럴비르네블루2차 (~8/12)			
8/10 (화)	접수	경기	포천시	어룡동	포천리버포레세영리첼 1순위			
					경북	구미시	고아읍	구미푸르지오센트럴파크 1순위
	발표	전남	무안군	일로읍	남악오룡지구중흥S클래스에듀파크 1순위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천마에버리하임오션 2순위
	계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이안더메트로	
					대전	유성구	용산동	대전용산2B·호반써밋그랜드파크(민간임대)
		대전용산4B·호반써밋그랜드파크(민간임대)						
		강원	강릉시	교동	강릉롯데캐슬스그니처			
		경기	김포시	양촌읍	김포양곡E1(행복주택) (~8/13)			
통진읍	김포마송B3(행복주택) (~8/13)							
대구	중구	태평로3가	힐스테이트대구역퍼스트 (~8/12)					
8/11 (수)	접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진접2A1(사전청약) 2순위			
					남양주진접2B1(사전청약) 2순위			
	성남시	북정동	성남북정1A1(사전청약) 2순위					
	포천시	어룡동	포천리버포레세영리첼 2순위					
	계약	인천	계양구	굴현동	인천계양A2(사전청약) 2순위			
					경북	구미시	고아읍	구미푸르지오센트럴파크 2순위
	전남	무안군	일로읍	남악오룡지구중흥S클래스에듀파크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이지더원3차 1순위				
	8/12 (목)	발표	서울	중구	충무로2가	비밀리엔남산 ▲		
						전남	여수시	소호동
접수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이지더원3차 2순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비버리하임3차 ▲
계약		경기	평택시	세교동	평택지제역자이			
					경기	고양시	풍동	더샵일산엘로이(1단지) ▲ (~8/15)
더샵일산엘로이(2단지) ▲ (~8/15)								
더샵일산엘로이(3단지) ▲ (~8/15)								
경기		용인시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리메인시티 ▲				
오픈		서울	중구	충무로2가	비밀리엔남산 ▲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금호어울림오션테라스	
접수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이지더원3차 2순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비버리하임3차 ▲	
계약	경기	고양시	풍동	더샵일산엘로이(1단지) ▲ (~8/15)				
				더샵일산엘로이(2단지) ▲ (~8/15)				
더샵일산엘로이(3단지) ▲ (~8/15)								
경기	용인시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리메인시티 ▲					
오픈	인천	계양구	효성동	계양서해그랑블더테라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라센트스위첸 ▲	
경기	양산시	덕계동	트라마제양산(1단지)					
트라마제양산(2단지)								
경기	양산시	평산동	양산코아루에듀포레					
충북	청주시	북대동	더샵청주센트럴					
계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비버리하임3차 ▲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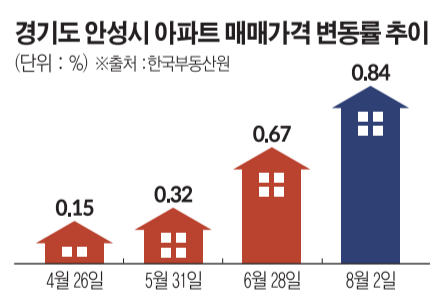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부동산114 REPS

안성 ‘꼬마아파트 갭투자’로 집값 상승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값이 급등세다.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저가 매물을 골라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에 나서는 투자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안성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0.84% 올랐다. 4주째 비슷한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0.2~0.3% 안팎을 오가는 수준이었지만 6월 들어 급격히 뛰어 올랐다. 5월 마지막주(31일 기준) 0.32%였던 상승폭은 6월 첫 주(7일 기준) 0.54%로 뛴 뒤 연이어 0.88% (14일 기준)로 치솟았다.

안성시 공도읍 산수화아파트 전용면적 59㎡형은 이달 5일 1억5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올해 초 1억 원 안팎에서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6개월 사이 약 5000만 원이 뛰었다. 연초 1억 2000만 원 안팎 수준에서 거래되던 같은 지역 준은정설아파트 전용 59㎡형은 지난달 1억9500만 원에 팔리며 2억 원을 눈앞에 뒀다. 당양동 태영아파트 전용 84㎡형은 지난 4월 1억5900만 원에 팔렸지만 지난달엔 1억9700만 원으로 실거래가가 경중 뛰었다. 동일 면적의 현재 호가는 2억2000만~2억3000만 원선이다. 안성시에선 공시가격으로는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들이 불티나게 팔린다. 부동산



원도 지난주 안성시 아파트값 상승 이유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아파트가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요즘 수도권과 지방에선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매물 매집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였다. 하지만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기본 취득세율(1.1%)만 적용되면서 이같은 저가 주택이 틈새 투자처로 떠올랐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근 들어선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갭투자로 저가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많아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평택(180건)·화성(112건)·안성(100건)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용두사미’

사기 피해액 5000억·김재현 대표 1심 징역 25년 선고됐지만 이현재·채동욱 등 무혐의, 로비 의혹 문건 ‘신빙성 없다’ 결론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시작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 검찰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수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끌어모은 옵티머스 수사는 김재현 대표 등 일당 중 15명이 구속기소되고 16명이 불구속기소되며 1년 2개월 만에 끝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피해액 5000억·김재현 1심 징역 25년=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달아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옵티머스는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하는 펀드라고 속여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6000억 원을 끌

어모았다.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이 집중적으로 판매했고, 수탁사는 하나은행이 맡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는 투자금 대부분을 부실 채권 인수나 상장기업 인수, 펀드 돌려막기(폰지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옵티머스 핵심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했다. 김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수사팀 1년 넘게 의혹 규명 못해=정·관계 로비 의혹은 검찰이 옵티머스 사무실에서 압수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에서 촉발됐다. 이 문건에는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게이트 사건화 우려’ 등이 적시됐다.

채 전 검찰총장과 이 전 경제부총리, 양 전 나라은행장, 김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인사들이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회사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로비

의혹이 확산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검사 18명이 투입된 대규모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은 금감원 검사를 방해하기 위해 김 대표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채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서로 청탁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를 진행할 단서가 없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문건 내용대로 채 전 총장이 지난해 5월 이 지사를 만나 함께 식사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두 사람 모두 “사업과 관련해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의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되자 이전 총리가 채 전 총장을 옵티머스 측에 소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옵티머스 경영진 중 1명과 성지건설 대표이사를 기소했으나 펀드 사기 부분은 수사하지 않았다.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1년 가까이 끌여온 수사가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정·관계 인사는 윤도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유일하다. 김중용 기자 deep@

대법 “본인이 저작권 보유해도 공저자 이름 거짓 기재는 유죄”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저자들 동의해도 위법 행위”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책이라도 다른 교수들의 이름을 허위 공저자로 올린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학교수인 A 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책을 출간하면서 저자가 아닌 다른 교수들을 공저자로 넣어 소위 ‘표지같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법은 저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해 실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실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위

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와 이름을 올린 교수들은 서로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저작권법이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저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타인 저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강의 임의단축” 대학교수 해임은 과도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학사일정을 임의대로 단축하고 골프대회 참석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보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교수인 B 씨는 주 2회 수업을 1회로 통합 운영하거나 학사일정을 임의로 단축하고, 골프대회에 참석하느라 수업결손을 초래했음에도 보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됐다. A 법인은 B 씨의 수업 결손율이 35%에 달해 심각한 수업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B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심사위는 지난해 4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로 변경을 결정했다. B 씨가 징계위에서 항암 치료 등으로 부득이 수업결손이 발생했으나 학

생 동의를 얻어 수업 일정을 조정했고, 통합 수업도 학생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A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유형, 참가인이 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처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B 씨가 일부 수업을 계획서와 다르게 진행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수업시간 변경, 일부 보강 등을 해 실제 수업 결손율은 학교가 산정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기는 했으나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 강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업 시간 변경은 취업 준비 중인 다수의 학생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적막한 부산 해수욕장 일요일인 8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10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개장 중인 부산 시내 해수욕장은 이 기간에 모두 폐장된다. 연합뉴스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 나온다

법원, 휴정기 끝나 재판 잇따라 정경심 횡령 등 혐의 판단 주목 박삼구 등 경제인 공판도 ‘속도’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번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내려진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하고 1억 6000여만 원을 추징 명령해달라고 재판부

에 요청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1억4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검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관계인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는 만큼 결과에 큰 관심이 쏠

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전현직 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9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첫 공판을 연다. 10일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LS니코동계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된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최성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공판도 속개된다.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서울시-자치경찰 유흥시설 합동단속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위반사항을 합동단속 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뒤에도 서울 시내에 있는 일부 유흥 시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사례가 늘자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합동 단속을 벌인다.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정책과 등 서울시 관공부서와 서울경찰청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폐문 불법 영업 등 기존에 단속이 쉽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획단속을 시행한다.

합동단속반 내에서 첩보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속 성과를 홍보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진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한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해 추진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배너를 만들어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음성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을 실질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이젠 농기계도 자율주행...영상인식 트랙터 곧 상용화

농진청,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트랙터기술 개발

사람보다 정확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곧 상용화된다.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서 자율주행 농기계 시대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진청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영상인식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다.

농진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영상인식 기반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에 농기계 업체와 함께 고정밀 측위시스템(RTK-GPS)을 활용해 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고가의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대체할 인공지능 기반 영상인식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이다. 이 기술은 논밭을 갈고, 풀을 뽑을 때 생기는 흙부수기(세토) 작업 여부를 달리닝 기술로 분석해 트랙터를 조향 제어한다. 트랙터 앞에 장착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통해 경운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의 경계를 검출하고 미리 정한 주행기준선과 비교해 오차를 조정하는 원리다.

농진청에 따르면 영상으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해본 결과, 작업속도가 시속 3km일 때 직진 주행경로 오차는 ±9.5cm였다. 이는 운전자가 직접 주행할 때 발생하는 오차 ±21.2cm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결과다.

농진청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 고가의 위성항법시스템보다 합리적인 예산으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한 데다 영상 정보를 이용하는 만큼 장애물 인식이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도 더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고, 앞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여 관련 업체를 통해 실용화할 계획이다.

3km/h 주행시 오차범위 ±9.5cm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안정적 장애물 인식·돌발상황 대처도 쉬워 2050년 시장 450억 달러로 확대 선진국과의 첨단기술 격차 줄일 것

여기에 더해 농진청은 농기계 업체와 함께 고정밀 측위시스템을 활용한 트랙터 자율주행 고도화 기술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고정밀 측위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작업 경로를 설정하고, 설정된 경로를 따라 직진 주행과 선회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농기계 업체는 직진 자율주행 기술을 우선 트랙터에 적용해 농업 현장에 보급하고, 선회, 장애물 인식과 회피 등 고도화한 자율주행 기술을 산업화할 계획이다.

강금춘 농진청 스마트팜개발과장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이 농촌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산·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이나 지원 사업, 검인증 기준 등을 조기에 마련해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산업화가 자리 잡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무인 농업시대가 현실

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자율주행 트랙터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도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기준 트랙터 세계 시장 규모는 504억 달러로 이중 자율주행 트랙터 규모는 약 6억 달러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이 45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 트랙터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위치 기반 경로 생성과 자동 조향제어 기술이 적용된 트랙터다. 0~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가운데 1단계 기술이 적용됐다. 자율주행 기술은 0단계는 원격제어, 1단계는 자동 직진 조향, 2단계는 자동 경로 생성·추종, 3단계는 경로 생성·추종 및 작업기 제어, 4단계는 무인 완전 자율주행 및 작업으로 분류한다. 선진국은 3단계 일부 상용화, 4단계 실증·검토 등 한발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쿠보타, 안바 등 제조사는 3단계 연구개발을 완료했고, 2018년부터 로봇 트랙터, 이양기를 상용화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기술개발에 점차 속도가 붙고 양산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한다. 1단계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 농기계시장이 견고해지면 2~2.5단계 기술이 적용된 농기계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해당 수준의 기술 개발을 마치고 양산 시점을 가늠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기계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시장의 반응도 뜨겁다”며 “정부에서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농가에 더욱 빠르게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가뭄에도 발농사 ‘여유작작’ ICT 활용 물문제 해결한다

최근 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발작 물의 수요와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발농사에 필요한 물 공급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농사에 지표수와 지하수를 동시에 끌어쓸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연구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발 관개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다기능 저류조 용수 공급 시스템 개발이다.

용하면서 수질과 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CT를 이용한 원격 자동 관수시스템을 갖춘 다기능 저류조 용수공급 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서울대, 이티위터, 콘택이엔지가 함께 참여한다.

공사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1차 연구를 통해 국내외 발관개용수 취약성과 회복력 평가 사례를 분석하고, 발관개용수 적용 우선순위를 결정할 평가절차를 개발했다. 특히 평가절차를 바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취약성

농어촌공사, 저류조 용수 공급시스템 개발 착수 지표·지하수 동시에 활용한 ‘스마트 농업’ 기대

평가가 기후변화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으로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발농사에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모두 활용하게 돼 가뭄에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어촌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근교의 전국 농촌 저수지 수해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논 84%, 밭·시설재배·과수원 등은 16%로 나타나 과거보다 밭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밭 비중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필요성이 제기돼 공사는 연구를 시작했다. 공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표수와 지하수를 모두 활

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공사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주로 논농사로 이용되고 있는 저수지 수량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전국 농어촌 용수구역 취약지구를 선정하고, 최적화된 용수공급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농업분야에서도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농업과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연구를 계속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농진청이 개발한 영상인식 기반 자율주행 트랙터. 사진제공 농진청

www.hauri.co.kr

“새로운 바이로봇으로 보안을 강화하다”

더 강력한 기능으로 새로워진 통합백신 - 바이로봇

- 듀얼엔진과 행위기반기술이 적용된 통합보안솔루션 - 바이로봇 시큐리티 1.0
-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 - 바이로봇 시큐리티 서버 1.0
- 조직내 백신 및 보안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 바이로봇 매니저 1.0

(주) 하우리 | 서울시 동작구 만안로 104 | 대표전화 02-3676-1100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 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골프클럽으로 **100** yd 더 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 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로,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정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BIG BANG®

(주)뱅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golf.co.kr



“병원 운영의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립니다”

메디컬 토털 솔루션...서은경 인사랑컨설팅 대표

개원부터 원장·간호사·매니저 등 교육, 홍보·마케팅까지 병·의원 매출 변화 일어나며 입소문, 의사 전용 몰도 계획

의사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직업이다. 하지만 개원만 하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는 끝났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원의 경영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72.2%였다. 요양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으로 나뉘는데 의원은 매달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의 개업과 폐업을 기록하고 있다.

진료는 잘 보지만 경영은 상대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동네 병원을 위해 메디컬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인사랑컨설팅'이다.

올해로 20년을 맞은 인사랑컨설팅은 의사가 병원을 처음 개원할 때 필요한 다양한 병원컨설팅부터 병원 전문인력을 위한 아카데미, 병원 홍보 및 마케팅, 해외 의료관광 컨설팅 등 메디컬과 관련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서울 강남구 패스트파이브 강남 3호점에서 만난 서은경(사진) 인사랑컨설팅 대표는 “처음엔 2차 병원, 종합병원이 주요 컨설팅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전국 200여 개에 달하는 병원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했고, 추가로 3500여 곳의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확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컨설팅을 진행한 병·의원의 매출 변화가 가시화하면서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다.

실제 컨설팅을 진행한 A한의원은 8개월 만에 매출이 월 5300만 원에서 월 8500만 원으로, B병원도 8개월 만에 월 5600만 원에서 월 9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병원 원장부터 간호사, 매니저 등에 대한 인사랑컨설팅의 교육 아카데미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병원컨설팅진단시스템' 특허를 출원했고, 병원 채용진단시스템도 출원을 진행 중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증한 기업부설 연구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서 대표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이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됐다. 병원에 대한 경영 컨설팅부터 원장, 간호사, 매니저, 코디네이터 등 병원 내 인력에 대한 교육을 모두 온라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와 시스템을 미리 갖춰 놓았기 때문이다.

민간 자격증이지만 일선 병원들이 인정해주는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 같은 병원 관련 온라인 교육은 국내를 넘어 의료 시스템이나 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가들로 수출도 가능하다.

서 대표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의료 인력 수출, 병원 시스템 수출, 인력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전용 몰도 계획하고 있다. 일명 '닥터몰'이다. 서 대표는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 관련 물품과 기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판촉물, 인쇄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사 전용 몰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며 “개원의 모든 것, 병원의 모든 것, 병원 운영의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영희 기자 che@

크래프톤, 손현일 인도법인 대표

크래프톤이 손현일 인도법인 초대 대표를 통해 인도시장 진출과 신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크래프톤은 인도법인 PUBG INDIA 초대 대표로 손 본부장을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작년 11월 인도의 비디오 게임, E스포츠, IT,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인도 법인을 설립했다. 손 대표는 2017년 펍지 주식회사에 CFO로 합류했다. 지난해 펍지 주식회사와 크래프톤이 통합한 이후에는 투자본부장을 맡아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 게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끌었다. 이어 손 대표는 현지 대표 선임과 동시에 현지에서 직접 인도 게임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확장을 이끄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SH공사, 양용택 도시재생본부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도시재생본부장에 양용택 전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선임 본부장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나노기술원장에 서광석 명예교수

한국나노기술원은 서울대학교 서광석 명예교수가 선임 원장으로 9일 취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전문가인 서 원장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 석사, 미국 미시간 앤 아머 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서 원장은 제3기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전문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연합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통 큰 기부'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에 300억 사재 출연

김병주(사진 오른쪽) MBK 파트너스 회장이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300억 원을 사재 출연하는 '통 큰 기부'를 했다. MBK파트너스는 6일 김병주 회장이 서울시청에서 오세훈(왼쪽) 서울특별시장과 강철원 민생특보, 주용태 문화본부장 및 서울시 관계자, 김 회장의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에 들어설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기금 3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에 개인이 기부한 첫 사례다. 서울시립도서관은 당초 전액 시비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기부로 서대문구에 건립 예정인



시립도서관은 전액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부자명을 도서관명칭 표기로 예우했다. 해당 시립도서관은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으로 명명된

코로나 와중에...구설 오른 오바마 환갑잔치

당초 계획보다 축소했지만 비판 목소리, 과거 측근들도 '왜 굳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도 버락 오바마(사진) 전 미국 대통령의 환갑잔치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다. 코로나19 우려를 의식해 파티 참석 인원을 대폭 줄였지만, 행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저녁 매사추세츠주 남동부 연안에 있는 고급 휴양지 마사스비니아드섬에서 열린 오바마 전 대통령의 60번째 생일 파티가 진행됐다. 파티 참석자 중 마스크를 착용

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티 인원은 예상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애초 참석자만 475명, 파티 스태프만 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파티를 계획했다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파티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팝스타 비욘세와 남편인 래퍼 제이 지 등은 계획대로 참석했고, 영화감독 겸 제작자 스티븐 스피버그, 배우 조지 클루니, 싱어송라이터 브루스 스프링



스틴 등도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데이비드 레터맨과 코난 오브라이언, 파티 장소를 빌려준 코미디언 래리 데이비드는 초청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막판에 초대 명단에 빠질 줄 모르고 파티 참석을 위해 섬으로 날아온 일부 유명 인사가 있어 오바마 측은 이들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도 발생했다.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델타 변이 우려로 일찍이 파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백악관도 파티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 파티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음성 진단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행사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파티를 그대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엘리스 스테파니 공화당 하원의원은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이 행사를 축소된 파티라고 포장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 사이에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생일파티 계획을 계속 밀어붙인 것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부음

추상·인간·자연·탐색 거듭한 정문규 화백

1950~1960년대 한국적 추상화를 모색하다 1980년대에는 인간을 주제로 구상 미술전을 열고 1990년대 이후로는 꽃과 나무 등 자연을 그리는 서양화가 정문규(鄭文圭) 전 인천 교대·경인교대 교수가 6일 오전 9시 57분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주사범학교, 홍익대 미술학부 회화과를 졸업했다. 1955년 진주에서 첫 개인전을 연 것을 시작으로 민속성·토속성이 결집된 추상화를 선보였다. 1960년대 말 일본 도쿄에

솔대 대학원에서 유학하면서 구상화를 다시 공부했고, 귀국 후 흰색과 갈색만을 사용하는 모노크롬에 갈 등으로 스크래치를 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이브시리즈'를 그렸다.

1982~1987년에는 추상미술이 대세이던 시기에 '인간'을 주제로 6차례 구상미술전을 개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2년 위암 수술을 받고 극복한 이후 회화 경향이 다시 바뀌었다. 이후로는 밝은 색의 꽃과 나무를 주로 그렸다.

▲박용식 씨 별세, 방아임 씨 남편상, 박순주(LG화학 브랜드팀장)·신·진우(삼성전자 책임) 씨 부친상, 구상욱(국가기술표준원 예산홍보팀장)·최길학 씨 장인상, 홍지화 씨 시부상 = 8일, 광주 국민장례문화원 203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62-

606-4025

▲김형기 씨 별세, 김영순 씨 남편상, 김한규·미자·상규 씨 부친상, 이상준(프레스맨 편집국장) 씨 장인상, 박정연 씨 시부상 = 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 20분, 02-2227-7544

▲하옥선 씨 별세, 전병호(헤럴드경제·남도일보 부회장) 씨 모친상 = 8일, 광주 서구 VIP장례타운, 발인 10일 오전 7시, 010-4605-5263

▲김춘자 씨 별세, 이맹현 씨 부인상, 이민숙·용재(남양 넥스 책임)·용휴(넷마블 몬스터 부장)·용표(기보 대표) 씨 모친상, 유일동(e대한경제 주필·전무) 씨 장모상 = 8일, 의정부 성모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031-820-3468

▲조덕형 씨 별세, 조성근(대전 천성강

리교회 원로목사) 씨 부친상, 박영서(전 대구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장) 씨 장인상, 조철희(국민의힘 정책과장) 씨 조부상 = 8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빈소, 발인 10일 오전 7시, 042-522-4494

▲신현 씨 별세, 신완철(인평 대표이사·전 한화건설 임원)·홍철(유아이헬리제트 기장)·효철(푸른저축은행 감사본부장)·익철(CJ대한통운 점장)·경숙(소설가)·소연(약사) 씨 부친상, 남진우(명지대학교 교수)·유선근(금융감독원 부국장) 씨 장인상 = 7일, 전북 정읍시 호남장례식장, 발인 9일 낮 12시, 063-533-4500

▲한백수(전 서울경제신문 편집부 차장) 씨 별세, 정선용 씨 남편상, 한지명 씨 부친상, 권오섭(SG 구매팀장) 씨 장인상 = 7일, 인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낮 12시, 1600-4484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 김은미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도로국장 이윤상 ◇과장급 전보 △도시재생영랑과장 김영혜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국장급 전보 △금융산업국장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 안창국 △금융안전지원단장 김홍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수입식품안전정책과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장 이종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 팀장 김세은 △ 의약품심사부 첨단 의약품품질심사과장 손경훈 △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 오일웅 △ 의리기기심사부 체외진단기기과장 정호상 △ 의리기기심사부 실험영상기기과장 이원규 △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장 윤혜성 △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 박창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장 전대훈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김성희 △ 수입관리과장 김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최용훈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산업·기술 정책의 모색

정권 말에 추진하는 정책이 추동력을 갖기 위해선 '역산(逆算)의 발상'이 중요하다. 남은 10개월을 거꾸로 계산하면서 행정의 긴박감을 높여가는 것이다. 또한 크고 굵직한 과제보다는 작지만 절실한 과제를 먼저 챙기는 게 바람직하다. 실천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피로도가 상한치에 이르고 있는 관료들에겐 '꼭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주시시켜야 한다.

대선 정국이 치열함을 더해간다. 그럴수록 우리 사회의 집중력과 결집력은 떨어지고, 시야는 더욱 좁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를 흔들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변종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겐 남보다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나라의 내구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전략 보고 회의를 가졌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4년 뒤인 2025년까지 백신 5대 강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 기간 중 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K브랜드'를 기치로 내걸었다.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와 지자체, 공공기관, 심지어 기업들까지 'K어쩌구'는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구호가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대강 찾아봐도 50개는 족히 넘는다. 한국판 뉴딜을 K뉴딜로 부르는 것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K백신, K배터리, K컬처를 넘어 이제는 K메타버스, 심지어 K방조제 새만금까지 나왔

다. 그래서 문 정부의 정책을 한마디로 'K어쩌구(정책), ~강국'이라고 시니컬하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 4년여 동안 'K브랜드'가 정착되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 편협해지면서 내향적으로 되어 버렸고, 시야는 좁아졌다. 세계의 흐름을 안다고 말로만 떠들고 있지 대변화의 높은 파고를 헤치고 노를 저어갈 자세는 여럿껏 보이지 않는다. K백신과 5대 백신 강국이 허무하게 들리는 이유다.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K양극화'라고 지적하는 게 차라리 설득력이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한 것은 '디지털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기술정책'이라고 말한다. 뒤늦은 각성이지만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우선 국내외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우리의 상황은 풀어 나가기가 녹록지 않다. 대외적으로 미·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패권경쟁이 상시화되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무역·기술·표준 경쟁이 심화되고, 신기후체제 출범(탄소중립)에 따라 수소경

제와 녹색경제가 전면에 대두됐다. 대내적으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노동의 질 저하)되고, 국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됐다. 이에 더해 고실업률(청년실업),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이런 불안정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기술혁신, 생산방식 전환, 노동구조 변화(노동 유연화, 플랫폼 노동, 디지털 인력 등), 생활양식과 소비 패턴의 변화 등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글로벌 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이러한 시대를 선도할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신 혁신동력 창출, 산업·지역 불균형과 저성장·양극화 해소,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술사업화 활성화, 디지털 개방형 혁신, 디지털 인재 양성 등에 대한 포괄적 대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혁신

전략연구소는 '미래혁신 2030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제안을 정리했다.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응한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개편과 대학·출연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사회적 기술개발 확대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정권 말에 추진하는 정책이 추동력을 갖기 위해선 '역산(逆算)의 발상'이 중요하다. 남은 10개월을 거꾸로 계산하면서 행정의 긴박감을 높여가는 것이다. 또한 크고 굵직한 과제보다는 작지만 절실한 과제를 먼저 챙기는 게 바람직하다. 실천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피로도가 상한치에 이르고 있는 관료들에겐 '꼭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주시시켜야 한다.

9월 국회, 10월 국정감사, 대선 정국의 전면적 확대 등 한층 복잡해지는 이 시기야말로 다시 한번 경제·산업·기술 동향을 점검해 봐야 할 때다. 이러한 점검은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지름길이다.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가 현 위치를 제대로 알아내고, 짐로를 결정해야 한다.

세계 프리즘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전 SK 사장



광복의 계절이 왔다. 독립기념관은 8월의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의 이길용 체육기자를 선정했다. 이 기사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한 손기정 선수의 시상식 사진에서 일장기를 삭제한 주인공이다.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을 문제 삼아 동아일보를 폐간까지 시킨 일제에 맞서 동화약품(당시 동화약방)은 광고로 민족의 패거리를 방방곡곡에 알렸다. 동화약품은 당시 활명수 광고에 '반도(조선)남아 손기정의 우승을 축하'하는 문구를 집어 넣었다. 서슬 퍼런 일제의 정보 통제를 피하며 진실을 전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동화약품의 사장이었던 민강 선생은 상해임시정부와 국내 간 비밀연락망인 '서울연통부'를 운영했다. 동화약품이 만들던 활명수는 한 병 값이 당시의 막걸리 한 말 상당,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으로 이동할 때 활명수를 지참했다가 현지에서 비싸게 팔아 군자금을 마련했다. 결국 민강 선생은 옥살이를 했고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후에

동화약품을 인수한 보당 윤창식 선생은 '조선 산직장려계'라는 비밀 독립운동단체의 총무로 활약했다. 7대 사장이었던 윤광열 선생은 보성전문 재학 중 징집됐다. 광복군 중대장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활명수로 민중의 생명을 구한 동화약품은 대를 이어 독립운동을 한 경제인을 배출한 민족의 기업이기도 했다.

전경련의 설립에 관여했던 해사 이원순 선생은 1914년 하와이로 망명해 받은 경제인으로 받은 독립운동가로 살았다. 그는 가구판매업을 해 번 재산을 대조선독립단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독립운동의 군자금으로 썼다. 1947년에는 여권도 없이 스톡홀름에 가 한국올림픽위원회(KOC)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가입을 성사시켰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쾌거였다. 귀국 후 한국해방개발 등을 설립해 경제활동을 한 독립운동가를 전경련은 타계할 때까지 고문으로 예우해 재계의 원로로 근진히 모셨다.

비슷한 시기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11

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소년병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대학 졸업 후 식품회사를 세워 상당한 재력을 쌓고 1926년 귀국해 유한양행을 설립했다.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이 창업의 바탕이라, 그의 기업관은 조국독립 그 자체였다. 서재필, 이승만, 조병옥 등이 그의 독립운동 동지들이었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조흥제 회장은 학창 시절 6·10만세운동을 주도했다 투옥됐다. 당시 중앙고보 3학년 급장이었던 조흥제는 시위 주동자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었고, 이후 동맹휴학을 주도했다 끝내 퇴학당하고 말았다. 두산그룹의 창업주 매현 박승직 선생은 1907년 거족적으로 전개된 국제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해 거액을 기부했다. 이때의 기부로 두산은 2001년 국제보상운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서상돈상을 받기도 했다.

LG그룹의 창업주 구인회 회장은 1942년 독립군 양성을 위한 자금으로 쓰라고 백산 안희제 선생에게 쌀 500가마니 값에 상당하는 1만 원을 희사했다. 당시 일제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이에게 독립운

동 자금을 대준다는 것은 사업은 물론 집안까지 거덜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태연히 했다. 상해임정 비밀자금의 통로로, 안희제 선생이 세운 백산상회의 설립주주 중 한 분이 GS그룹의 공동창업자 허만정 회장이었다. 지금 LG와 GS는 경영상으로는 분기됐지만 항일애국의 뿌리는 태생부터 공유한 셈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한창일 때 전경련은 삼성이 상해임정정사를 복원한 만큼 중경임시정부 청사는 LG그룹이 주도적으로 복원하도록 했다. 한때는 3·1민족운동 대표 33인의 생가를 30대 그룹에서 모두 복원해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기업의 활동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경제인들에게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국적이 따라붙는다. 나라 잃은 서러움을 일찍이 절감했던 한국의 경제인들은 어느 나라 누구보다도 애국의 신념으로 독립을 꿈꿨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경제인들의 독립운동을 찾아내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한국 재계의 뿌리를 찾는 또 다른 과제라 할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존 드라이든 명언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영국의 시인, 극작가 겸 비평가다. 정치적 풍자시 '압살름과 아히도벨', '훈장(勳章)', '플렉크노 2세'를 남긴 왕정복고(王政復古) 때의 대표적인 문인. 처음에는 크롬웰의 공화정치를 지지하였으나 왕정복고와 더불어 왕당파가 된다. 비평가로서는 당시 프랑스 고전주의 이론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영국 작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라 하였다. '극시론(劇時論)'으로 '영국 비평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631-1700.

☆ 고사성어 / 척활지굴(尺蠖之屈)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은 다시 펴기 위해서다"라는 말이다. 미래의 성공을 위하여 현재의 굴욕이나 어려움을 참아야 하는 것을 비유한다. 주역(周易) 계사(繫辭) 하편에 나온다.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은 다시 펴기 위함이다(尺蠖之屈以求自伸), 용과 뱀이 겨울에 칩거하는 것은 봄을 위하여 그 몸을 보존하는 것이다."

"작년도 '물국감'이었다지만 올해가 더 할 것 같은데요.", "대선 레이스에 묻히지 않을까요.", "캠프에 전념하느라 국감 준비할 여력이 있을까 싶어요."

최근 여의도에선 서릿발 같아야 할 '국정감사'를 두고 이러한 김빠지는 말들이 흘러 나온다. 이른바 정가의 가장 큰 잔치인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열리는 건 역대 처음이다. 이르면 추석 후인 9월 말, 10월께 열리는 국감 와중에 최종 본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역시 처음이다. 여당이 경선 연기론을 두고 수 싸움을 벌인 것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의 경선판도 일찌감치 예열되며 후보 간 공방전이 격화됐다. 야당 또한 경선 버스에 시동을 걸고 있다.

기자수첩



이꽃들 정치경제부/flowerslee@

2021 국감 천기누설

아무리 '올해도 물국감'이란 불멘소리에 도 정가가 신발 끈을 고쳐 매야 할 이유는 따로 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감사원장이었던 야권 주자들(윤석열, 최재형)의 잘못을 겨냥해 여권의 서슬 퍼런 공세가 있을 수 있다. 또, 야권은 '이재명 국

감', '경기도 국감'을 정조준할 수 있다. 비단 행안위 소관뿐 아니라,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를 두고도 국토위 등에서도 다양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 도리어 이재명표 정책 홍보의 장으로 반등시킬 수도 있다. 현직 도지사는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란 점

에서 지사직 유지도 관건이다.

이처럼 맹탕 국감을 중앙정치 당리당략에 따라 중탕할 순 있겠으나 제대로 우려낸 '마라탕' 현안 질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올해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와 감시, 정책논의 발전이란 원리원칙을 내걸고는 양두구육(羊頭狗肉)할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대선 국면이던 2012년 가을 국감에서 불거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논란과 같은 화약고가 터질지 지켜볼 일이다. 가장 안타까운 건 대선 레이스에 가려 빛 못 보는 국감이건 대선주자 간 네거티브의 빌미로 윗아래기 바쁜 국감이건 본연의 기능은 지극히 퇴색되었다는 점이다.

☆ 시사상식 / 코로나미 쇼크 (Coronomy shock)

코로나 (코로나19)와 이코노미 (Economy)의 합성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생활고 증가,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매출 급감 등의 경제적 타격을 뜻한다. 많은 국가가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고에 처한 국민에게 일정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 유머 / 보험 권유 퇴치법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 고등학교 동기가 직장으로 찾아왔다. 예측한 대로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거 나한테 팔면 얼마나 받아?"라고 묻자 그는 "아유 얼마 안 되지. 입만 아퍼! 한 이만 원 주나?"라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준비해 간 삼만 원 봉투를 주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대표전화,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이 넘도록 1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휴가철 성수기, 광복절 연휴, 학교 개학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4차 대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미 40일 이상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굵고 길게'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

장기화한 거리두기에 자영업자들의 충격은 각종 수치가 한눈에 말해 준다. 올 6월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 비중이 20.2%(558만 명)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100대 생활 업종' 통계에서도 5월 기준 전국의 호프집, 식당, 노래방, PC방 등 수천 곳이 문을 닫았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첫 주인 7월 12~18일 서울지역 자영업자의 저녁 시간 평균 매출은 2019년보다 31% 급감했다는 한국신용데이터 통계도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보니 1년 반이라는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당하는 고통도 그만큼 크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자면 이들 입장에서 그렇게 비중이 높은 집단에만 오랜 기간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억울한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매출이 급감해서 힘든 것은 물론 이거니와 각종 형평성 논란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전철이나 버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식당에 '3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합리적·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점심에는 4명까

데스크칼럼

이효영

부국장 겸 유통비이오부장



지 모임을 허용하고 저녁에는 왜 2명까지만 허용하는지, 점심과 저녁에 바이러스 감염에 차이가 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시위를 해도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달 14~15일 서울 시내에서 진행한 1인 차량시위와 관련, 경찰은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를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의혹으로 소환했다. 비대위는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1인 차량 시위"라며 "반약 이번 시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민주노총처럼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수천명이 모임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5차 지원금 지급도 피해 대상 업종, 피해 기준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터져 나온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2000만 원을 받으려면 연 매출 4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유흥주점처럼 아예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어야 한다. 거리두기로 인한 규제만 받았던 식당·카페 등은 집합금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라도 최대 900만 원에 그친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차등 지급이 비합리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가 닥친 지난

해에 2019년보다 매출이 늘었다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2020년 이후 창업한 업체는 전년 매출 기록이 없어 손실을 산정할 수가 없다며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사각지대가 속출하고 있다. 김정우 버팀목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사업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기란 어려운 문제지만 가장 피해가 큰 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최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답이다. 88% 국민에게 풀리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예산 11조 원을 잘 조정해서 국민 누구나 최대 피해자로 인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줄 순 없었는지도 아쉬운 대목이다.

아직은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정부도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부담스러운 것이다. 1년 반을 이어온 방역수칙 기준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11월 국민 70%가 백신을 접종하는 집단면역이 이뤄지기 전까진 3개월을 버텨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에게만 더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손실보상금만이 아니라 대출 상환 연기,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대통령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최대 피해집단이 된 자영업자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56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의 숙제다. hylee@

시설

아파트값 역대 최고 상승, 속수무책 부동산시장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 주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가 계속 고점론(高點論)과 함께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지만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주택 매수심리도 강해져 집값은 더 오를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8월 첫 주(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이 0.37% 뛰었다. 통계를 작성한 201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도 0.20% 올라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래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중저가 지역과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재건축단지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서울은 강남북할 것 없이 많이 올랐다. 노원구(0.37%) 상승률이 가장 높고, 도봉(0.26%), 중랑(0.21%), 송파(0.22%), 서초(0.20%), 강남(0.18%) 등도 계속 강세다. 인천은 0.37%, 경기는 0.47% 급등했다.

주택 매수심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월 첫째 주 107.9로 전주(107.6)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매수우위 시장인데, 4월 둘째 주 이후 17주 연속 100 이상이다.

매물의 급격한 감소,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수급불안이 갈수록 심화하는 탓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키우고 있다. 주택

보유자는 버티기와 증여에 나서면서 매물이 씨가 마르는 양상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또한 크게 줄고 있다.

전셋값도 치솟아 매매수요를 부추긴다.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작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 올랐다.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과, 재건축 이주수요, 방학 이사철 학군수요 등이 겹친 영향이다. 전셋값이 계속 올라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 집값은 계속 오른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도 힘들다. 정부가 작년 '8·4 대책'을 내놓고 '공급폭탄'을 장담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 공급방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전되는 게 없다. 서울 태릉골 프장과 서부면허시험장, 용산정비창 등과 경기 과천의 정부청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만3000가구, 서울 도심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 등을 새로 공급키로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과천청사 부지 개발이 백지화됐고, 태릉골 프장과 면허시험장, 용산정비창 등도 계속 난항이다. 공공재건축사업까지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외면한다.

이 정부의 임기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부동산시장은 정말 답이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다. 그동안의 25차례 대책은 한결같이 실패로 돌아갔다. 시장과 역행한 엉터리 정책 탓이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심해지고 있다. 문제가 풀릴 희망도 안 보인다.

노트북을 열며

송영록
산업부 차장



'갤럭시Z' 시리즈가 삼성에 중요한 이유

삼성전자 스마트폰 역사를 얘기할 때, '옵티아'를 빼놓을 수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주인공 이야기에 제격이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열자, 삼성전자는 '애니콜'의 아성을 이어가기 위해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한 '옵티아'를 내놨다. 2009년 10월 '옵티아2'도 출시했지만 떨어지는 성능과 무리한 마케팅에 '무니만 스마트폰'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옵티아의 실패는 '갤럭시'의 성공을 가져왔다. 절치부심한 삼성전자는 2010년 '갤럭시S'를 세상 밖에 내놨다. 2011년 후속작 '갤럭시S2'는 '희대의 명기(名器)'라는 평가를 받으며, 출시 5개월 만에 1000만 대를 팔아 치웠다. 최단 기간 판매 신기록이다. 갤럭시S2의 돌풍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2011년 3분기 처음으로 애플과 노키아를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중국 화웨이에 1위 자리를 잠시 내주기도 했지만, 연간으로는 꾸준히 1위 자리를 수성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성공 스토리다. 앞으로도 삼성 스마트폰 사업이 지금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애플에 밀리고, 중저가 라인업에선 중국 제조사들의 추격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다. 수익성에서 애플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판매량에서도 6월 기준으로 중국 샤오미에 처음 1위를 내줬다.

삼성 스마트폰의 상징인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 부진은 심상치 않다. 올해 1월 출시된 갤럭시S21 시리즈의 6개월간 판매량은 1350만 대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1700만 대가량 팔린 갤럭시S20보다 20%가 적다.

삼성전자는 11일(한국시간) '삼성 갤럭시 언팩'을 통해 공개하는 '갤럭시Z 폴드3'와 '갤럭시Z 플립3'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해 앞으로 수년~십 년 이상의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의 승자가 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시리즈와 삼성 프리미엄 라인업을 양분하던 '갤럭시노트'를

올해 출시하지 않는 고육책까지 꺼냈다. 노트 사용자들을 갤럭시Z 시리즈(이번 모델부터 S펜 지원) 혹은 S 시리즈의 최상위 버전으로의 흡수를 계획하고 있다.

폴더블폰 대체화를 위해 가격을 큰 폭으로 낮췄다. '갤럭시Z 폴드3'는 전작보다 40만 원가량 가격을 낮춘 100만 원대 후반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폴더블폰 판매목표는 600만~700만 대 수준이다. 이 정도면 갤럭시 노트의 수익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애니콜에서 옵티아, 그리고 갤럭시로 넘어오는 스마트폰 역사에서 삼성전자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고(故) 이진희 회장의 '애니콜 화형식', 애플과 벌인 세기의 특허 전쟁, '갤럭시노트' 단종 사태 등 굵직한 사건만 해도 여러 건이다.

'신기한' 스마트폰에서 주력 제품으로 올라선 '갤럭시Z'는 하드웨어의 대변혁을 가져온, 삼성 스마트폰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제품이다. 향후 삼성 스마트폰 사업 역사를 얘기할 때 갤럭시Z는 '구세주'로 기억될 수 있을까. 11일 공개하는 '갤럭시Z' 시리즈가 삼성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syr@

미리 보는 한 주 코로나19 4차 유행, 고용 영향 얼마나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4차 유행의 정점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최신 고용 관련 통계가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월)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6월 구직급여 수혜자는 69만3000명으로 전체 수혜금액은 1조944억 원에 달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2월 1조149억 원에 도달하며 지난해 9월(1조1663억 원) 이후 5개월 만에 1조 원을 다시 넘겼다. 이후 지급액은 3월 1조1790억 원, 4월 1조1580억 원, 5월 1조788억 원에 이어 6월까지 다섯 달째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혜자도 3월 75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도달한 이후 7월 70만여 명 규모다.

이어 11일(수)엔 통계청이 7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6월 취업자는 2763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8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작년 3월(-19만5000명)부터 1년 내내 감소하다가 올해 3월(31만4000명)부터 증가전환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7월 상황은 다르다.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권에 들어간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지표에 악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도 월간 재정동향을 내놓는다. 기준 시점은 올해 6월이다. 국제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관심사다. 올해 1~5월 국제 수입은 161조8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6000억 원 증가한 바 있다. 1~5월 진도율은 57.2%로 작년 동기 대비 15.8%포인트 높았다. 5월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지난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는 의미다. 정부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세수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13일(금)엔 한은이 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내놓는다. 올해 4월 이후 6달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입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월 수입물가지수는 115.43으로 5월(112.81)보다 2.3% 상승했다. 6월 지수(115.43)는 2014년 9월(115.77)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으로, 전월 대비 기준으로 5월에 이어 2개월째 올랐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7월도 상승세가 지속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홍석동 여론조사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